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관한 질적 고찰

: 남한 거주 이산가족을 중심으로*

A Qualitative Study on the Adjustment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 Focusing on Separated Families Living in South Korea

상명대학교 가족복지학 전공

부 교수 최연실**

Dept. of Family Welfare, Sangmyung Univ.

Associate Professor : Choi, Youn-Shi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mprove the understanding of the essential experience of Separated Families in South and North Korea in a socio-cultural context and to explore their post-separation adjustment proces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amilies.

Major findings in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han' was the central phenomenon that the participants experienced following their separation. Second, the core issue in the process of post-separation adjustment was 'accepting the separation and rearrangement of reality for reunion', and over time the participants went through four stages in their adjustment process: the stage of being overwhelmed, the stage of conflict, the stage of awareness, and the stage of acceptance. Third, the main factors affecting the participants' adjustment were supportive systems, available resources(individual variables) and interaction with other separated families. Fourth, four types were observed in the typology of adjustment and reunion of the participants.

▲주요어(Key Words) : 남북이산가족(Separated Families in the South and North Korea), 적응(adaptation), 재결합(reunion), 근거이론 접근(grounded theory approach)

I. 서 론

남북이산가족은 한국사회의 분단에 의해 50여 년의 세월 동안 생이별의 아픔을 경험한 장본인들로서 분단이라는 민

족적·역사적 비극의 가장 큰 희생자들이다. 역설적이게도 유난히 끈끈한 가족애나 연대, 가족이나 집단 중심의 가족주의 가치를 지닌다고 인식되는 한민족에서 남북이산가족은 이념적·정치적 문제로 반세기 이상을 분리되어서 살아왔던 것이다. 분단에 의한 이산가족의 발생은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기본적인 관계가 외부적·사회적·역사적 사건으로 인해 장기간 단절되어버린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지구상에서 한민족이 거의 유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41-C00308).

** 주 저 자 : 최연실 (E-mail : yschoi@smu.ac.kr)

일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이며, 따라서 남북이산가족은 한국의 사회적·역사적 특수성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45년 9월 이후 동기 여부를 불문하고 남·북한지역에 분리된 상태로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들의 자녀와 더불어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민과 남·월북자 및 정전협정 이후의 남·월북자나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는 재결합에 따라 배우자, 형제자매의 혈족 및 인척으로서의 신분관계를 회복·형성하고자 하는 자” 등을 포함하는 남북이산가족의 개념정의(통일부, 2006)를 살펴보면, 남북이산가족의 발생에는 다양한 시기와 원인이 작용하며, 수적인 규모도 상당히 크리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남북이산가족은 한반도 분단, 자진 월남·월북, 강제납치나 의용군 강제입대, 일본에서의 복송, 38도선에서 휴전선으로의 변경, 남북 및 북한 이탈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발생되었다(통일부, 2006). 이와 같이 다양한 남북이산가족의 발생원인을 고려해보면, 사실상 이산가족의 삶의 과정과 경험에서의 차별성과 편차를 예측해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남북이산가족을 거론하고 접근할 때 이러한 차이가 주목되지 않아 온 형편이다.

남북이산가족이 정치적·사회적·학문적으로 주목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각도에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통일 문제와 관련하여 남북이산가족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이들을 통해 통일 이후 닦힐 수 있는 남북 간의 이질감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리라 여겨지며(신윤, 1997), 통일 이후 남북한 사회통합이나 인적 통합, 안정에 핵심적인 역할을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둘째로, 남북한 이산가족의 수치는 한국 사회의 전체 인구를 고려할 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남북이산가족의 규모는 이산 1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세대들까지 포함하고 혈족 및 인척까지도 포함하게 되면 그 수치가 상당하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현재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총수를 거론할 때 이산 2, 3세대를 포함하여 통상적으로 ‘일천만’ 이산가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를 통해 이산가족의 경험이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편재(遍在)하고 있음을 절감할 수 있다. 셋째, 시간의 경과로 인해 이산 1세대가 고령화되거나 사망하는 시점에 이르렀다(엄명용, 2000; 재성호, 1998). 개인적으로는 이들이 혈육상봉의 비원을 풀지 못한 채 유명을 달리한다는 의미가 있지만, 사회적·학문적으로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더욱 힘들게 하는 상황을 야기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나름대로의 특성과 성과가 있지만, 몇 가지 한계가 존재했

다고 평가된다. 첫째, 남북이산가족 연구에서는 미시적 가족관계나 생활경험을 집중적으로 다룬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전체적으로 거시적·정치적·법적인 쟁점과 관심에 치우쳐, 분단이라는 역사적·인위적·외부적 사건이 개인이나 개별가족의 삶에 끼치는 영향을 생생하고도 구체적인 경험 분석을 통해 보여줄 연구가 미흡한 형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남북이산가족은 가족개념이나 의식의 변화와 유지, 가족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는데, 기존 선행연구들에서는 이러한 측면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반평생에 해당하는 시간을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도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가족의식의 근거라든가 혈육의 본질 등과 같은 연구주제를 추적해갈 수 있을 것이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성격의 연구는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셋째, 남북이산가족이 겪어온 경험의 편차와 차별성이 부각되는 연구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예를 들어, 같은 이산을 겪어도 상봉이나 재회를 경험한 가족들과 그렇지 않은 가족들의 상태가 어떻게 차이가 있으며, 또 이러한 경험이 이 가족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등은 아직 학술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넷째, 남북이산가족의 문제를 심리적 측면이나 적응기제 파악 등을 통해 접근해 가는 연구가 부진하였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당사자들의 정신건강적 측면뿐만 아니라 현실적 차원에서의 정보 제공이나 정책 입안의 기초 자료로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닐 것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남북이산가족을 다룬 선행 연구들에서는 재결합 이후의 문제점 발생에 주로 초점을 맞추었지만, 남북이산가족들의 관점에서 과연 재결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남북이산가족 연구에 나타난 이러한 한계점과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분단 반세기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이산을 겪은 가족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그리고 재결합에 대한 소망은 어떤 상태인지를 다루어보려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장기적으로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적절한 정책이나 개입을 제공할 수 있으려면, 그들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산가족이 이산과 관련하여 실제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다루어나가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이산을 경험한 가족들의 생활과 감정, 사고를 살피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그들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질적인 연구방법이 적합하다고 보인다(Creswell, 1998; Denzin

& Lincoln, 2003a, 2003b). 질적 연구방법은 이미 상당히 알려진 것들에 대한 새롭고 신선한 시각을 얻게 해 줄 수도 있으며, 양적 방법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현상에 관해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기도 한다(Strauss & Corbin, 199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질적 연구방법 중 특히 근거이론 접근방법(grounded theory approach)을 채택하였다. 근거이론 접근방법은 일련의 체계적인 과정을 통하여 어떤 현상에 대해 귀납적으로 이끌어낸 하나의 이론을 발전시키는 질적 연구방식(Strauss & Corbin, 1990)으로서 '참여자가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반응 하는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Stern, 1994). 이러한 성격을 지닌 근거이론 접근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상황에 기초한 이산의 경험을 분석하는 데 적절한 방법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이산을 겪은 가족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지각과 의미를 통해서 생활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 가족들이 이산에 반응하고 적응해나가는 과정과 재결합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분석하여 실제적 이론을 개발하려는 것이다. 탐색적 성격을 갖는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남북이산가족의 심리적 안녕과 복지, 정책적 개입을 위한 기초적 정보와 자료 제공의 성과를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문제의식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남북이산가족은 무엇을 경험하며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가?'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남북이산가족이 경험하는 중심적인 현상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남북이산가족은 어떠한 적응과정을 거쳐 나가고 이 과정에서 기여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남북이산가족이 지각하는 적응의 핵심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 재결합에 대한 관점의 유형들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II. 선행연구 고찰

1. 남북이산가족의 개념과 범주

한국현대사에서 이산가족은 시기마다 드러나는 양상이 달랐고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개념 정의의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하지

만 본 연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은 '남북이산가족'이므로 여기에 한정시켜 개념을 살펴보면, 통상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되는 해외이산가족은 제외되며, 현재 시점에서 남한과 북한에 분리되어 거주하는 가족이라는 지역적 한정성이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될 수 있다. 앞의 서론에서 제시한 통일부(2006)의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개념 정의는 바로 이러한 지역적 분리를 가장 일차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남북이산가족의 개념 정의에 가장 주축으로 포함되는 사람들은 정전협정상의 '실향민'이다. 이들은 1950년 6월 24일까지는 이남 또는 이북에 거주한 민간인으로서 전쟁으로 인해 이북 또는 이남에 있게 된 사람이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남북이산가족이 되려면 우선 '분단과 한국전쟁'으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고향을 떠나 '휴전선을 중심으로 헤어진 가족'이라는 선행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1950년대에는 실향민에 대한 개념의 적용 범위가 엄격하게 규정되어 당시 남한에서는 이산가족으로 분류되는 실향민이 '납북자'를 의미했으며, 이러한 정의에 따라 납북자 이외의 월북인은 더 이상 실향민, 이산가족으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한편, 한국전쟁 전이나 그 후 38선이나 휴전선에 의해 고향을 떠나 다시 돌아가지 못하거나 방문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그 유가족 역시 남북이산가족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 범주에 포함되는 사람들은 '납북어부'와 그 유가족이다.

남북이산가족의 범주가 보다 확대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특수이산가족' 또는 '광의의 이산가족' 개념이 등장하면서부터이다. 즉 과거에는 남북이산가족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비전향장기수, 납북자, 미송환 군인(국군 및 인민군), 월북자, 탈북자, 미귀환 남·북의 공작원 등도 이산가족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이 거론되었다(김귀옥, 2004:51-54).

2.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연구동향

남북이산가족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이다. 그 이전에도 이 분야의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세계적 탈냉전 흐름 속에서 남북교류와 대화가 꾸준히 지속되던 시기의 영향을 받음으로써 연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시점까지의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국내 연구들을 고찰, 검토해보면 특정 주제나 특정 영역 중심으로 관심이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남북이산가족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흐름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이산가족의 발생이나 형성과 현실을 전반적으로 분석한 연구들(강정구, 1992, 2002; 김문조, 1985;

대한적십자사, 1976; 윤종주, 1984; 이동원·조성남, 1997; 이인희, 1986; 이효재, 1985)이 시도되었다. 둘째,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에서 남북이산가족의 현황과 문제 진단 혹은 전망(김재용, 1998; 배성인, 2001; 안병영, 1984; 임순희, 2001a, 2001b; 전병재, 1984; 최의철, 2000)과 남북이산가족 교류확대 방안(신울, 2001; 최대석, 1997)에 관한 상당량의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셋째, 주로 법학이나 정치학, 사회학 관련 분야에서 통일이나 재결합 후 이산가족 처리의 법적 문제에 대한 정책적·사회적 분석에 대한 관심들(김명기, 1993; 류재철, 2001; 이은영, 2001; 이장희, 1993; 임순희, 1998; 통일연구원, 1999)이 이산가족 연구의 주류를 차지해 왔다. 넷째, 이산가족 중 특히 월남민 가족을 다룬 인류학이나 사회학, 가족학 연구가 있었는데, 이 연구들은 주로 경제적·문화적·사회적 측면에서의 정착과정, 체험(김광익, 1984; 김귀옥, 1999, 2004; 김성은, 1995; 김형재, 1988; 남상준, 1982; 박명선, 1983, 1991; 이문용, 1984; 조성미, 2002; 조형·박명선, 1985; 홍두승, 1984, 1985)이나 가족주의 가치, 관계망(김명혜, 1988; 이성희·김태현, 1993)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한편,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연구에서는 정부기관에서 제공하는 거시적 통계 위주의 정보와 정책 설명, 그 함의에 대한 해석과 관련된 자료들(통일부, 1999, 2001a, 2001b, 2001c, 2001d, 2005, 2006)도 이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북이산가족과 관련된 단체 차원에서의 기록화(이북5도위원회, 1981; 이북5도청, 1998)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외에도, 남북이산가족을 둘러싼 정책적·시사적 논의들(김덕, 1989; 도준호, 2000; 이장희, 2001; 제성호, 2002), 이산을 경험한 사람들의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을 다루는 대중매체 관련 접근(한국방송공사, 1984), 그리고 이산가족의 경험 시기(대한적십자사, 2001;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1996) 등도 이산가족 담론 형성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3. 남북이산가족의 적응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 가족생활의 내적 체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비교적 소수이다. 다음에서는 주로 남북이산가족의 이산 이후 적응을 다룬 선행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남북이산가족의 가족생활을 다룬 선행연구들(김귀옥, 1999; 김명혜, 1988; 김성은, 1995; 이성희·김태현, 1993)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은 주로 가족유대의식 혹은 가족주의와 연고자 등을 통한 사회관계망 등과 연계되어 집중적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남북이산가족들이 경험한 처절한 공포, 불안 및 사회적 혼란 등은 그들의 가족유대의식을 더욱 보수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으며(이효재, 1985), 때로는 이러한 전통적인 가족유대의식이 강화시킨 가족주의가 가족의 분산과 파괴를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명혜(1988)의 연구결과, 월남이산가족의 가족주의 가치는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그리고 이들의 가족주의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연령, 학력, 수입)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또한 북한 출신 월남인들의 가족주의의 지속기반이 되는 친족관계의 양상을 살펴보았는데, 월남인들의 남한에 거주하고 있는 친족범위는 근친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더불어 제사범위도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월남 및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가족주의와의 체계적인 연관성을 보여주지 못한 것으로 보았으며, 분단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이미 40여 년 전에 일어난 것이고 그 이후 산업화, 도시화, 직업 분화, 가족규모의 축소 등 급격한 사회변동을 겪는 와중에서 월남인이라는 특수한 집단도 전체 사회에서 용해되어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성희와 김태현(1993)은 월남이산가족과 비교해 볼 수 있는 대조군으로 비이산가족을 선정하여 두 집단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산가족에게 나타나는 특수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이산가족은 비이산가족에 비해 가족우선성, 부모공경의식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산가족은 비이산가족보다 보수적인 가족주의 가치관을 형성, 지속시키고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속초와 김제의 정착촌 월남민을 대상으로 생활경험과 정체성을 연구한 김귀옥(1999)은 연구의 일부분으로서 혼인과 가족 및 친족을 다루고 있다. 그는 이 연구에서 한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족주의가 강하지만 월남인의 경우 가족주의 및 연고주의는 더욱 중시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해석한다. 즉 이들이 고향의 가족에 대한 그리움으로 월남 초기에는 월남한 가족이나 친척, 동향인들이 가급적이면 뭉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강했던 것으로 보았다.

사회관계망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친인척 관계가 한국의 전반적인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볼 때, 월남이산가족에서 삶의 재적응과정은 비이산가족과 차이가 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박명선(1983)의 연구에서는 비이산가족에 비하여 사회관계망이 불리할 것으로 인식되는 이산가족에서도 계층적 위치와 사회이동 양상에는 친척이나 기타 연고자와 같은 일차적 관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월남인 세대 내 이동에 있어서 동행자나 연고

자가 없었던 경우에는 하강이동 경험자의 비율이 훨씬 더 높았지만 직계가족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승이동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비직계 친족이나 친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상승이동이 하강이동을 약간 상회하여 중간적인 양상을 나타냄으로써, 남한사회 내에서의 적응에 직계가족, 친척, 친지들의 존재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암시해 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남북이산가족들이 밀집해 살거나 각종 모임 등을 구성해 가면서, 그리고 혼인관계를 통해서 연고주의가 강한 남한 사회 내에서 결속을 다져왔다고 보고하였다. 이렇게 월남인들이 주거, 직장, 혼인관계, 공동체생활 등에서 내부결속력을 강화하게 된 원인으로는 남한지역 출신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지원의 고립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고향이 없기 때문에 더욱 유대가 깊어진 이들의 집단력과 '함경도 또순이', '평안도 박치기' 등으로 통하는 약삭같은 기질의 강인성을 두고 이들이 출세율이 높고 오히려 비이산가족보다 경제수준이 높아진다고 보는 시각도 있음을 언급하였다.

월남이산가족과 비이산가족을 대상으로 한 이성희와 김태현(1993)의 연구에서는 이산가족, 비이산가족 모두 사회적 지원망이 가족 > 친구 > 친척 > 이웃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리고 이산가족, 비이산가족 간에는 친척지원망에서만 차이를 보이는데, 이산가족보다 비이산가족의 친척지원망이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자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분단, 전쟁으로 발생한 실향, 이산이라는 상황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가족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영향력이 점차 소멸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연고자의 영향을 중심으로 북한출신 월남인들의 경제적 정착과정을 다룬 김성은(1995)의 연구에서는, 연고자들이 월남인들이 정착하는 데 여러 유형의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이동 초기에 겪는 문제들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즉 연고자들은 월남인들이 급격히 변화를 겪는 과정에서의 속도를 완화시키고 서서히 자원 및 지위를 복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귀옥(1999)은 월남인들의 정착에 있어서 사회적 연결망이자 사회조직의 기본단위는 친·인척과 동향인 연결망이고 이것이 월남인들이 정착촌에 유입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사회관계망과 관련하여 이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월남인들의 결혼이다. 이 연구에서는 월남 당시 연령층이 20, 30대였던 청·장년 가운데는 미혼이었거나 결혼했다라도 단신으로 월남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는데, 그들은 정착 직후 대부분 결혼한 것

으로 나타났다. 월남 초기에는 월남민들 사이에 이북 출신끼리 결혼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월남 후 정착촌에서의 남성초과현상은 혼인배우자 문제를 둘러싸고 남성들 간에 심각한 경쟁을 발생시키기도 했다.

한편, 재결합과 관련해서는 이를 문제 중심의 시각이 아니라 남북이산가족들이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의 관점에서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다. 다만 이와 관련되는 연구로는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 시 문제점과 대책을 다루면서 상봉 및 재결합사례를 언급한 임순희(1998)의 연구와 이산가족을 다루는 보다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시키면서 이를 간접적으로 논의한 김귀옥(2004)의 연구가 있을 뿐이다. 이중 전자의 연구는 일회적인 상봉과 탈북자들의 재결합을 중심으로 사례를 소개하고 있고, 후자의 연구는 재결합 의사를 직접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 정착촌 월남민들을 대상으로 통일 후 귀향의사를 물은 것이었다. 이 중 더 주목을 끄는 것은 후자의 연구인데, 이 연구에서 이산 1세대는 설령 통일되더라도 자신이 고향으로 재이주할 의사가 없다고 하였으며, 다시 고향에 적응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월남민들은 '이북도민', 즉 실향민으로 규정되고 있지만, 그들은 통일이 되더라도 고향은 '방문만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김귀옥, 2004: 163-165). 이를 통해, 그들이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유추하는 것은 속단과 비약의 위험이 있으나, 이산된 가족과의 상봉 이후 재결합의 문제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라는 추정은 미루어해 볼 수 있으며, 앞으로 이 연구 주제와 관련해서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야할 필요성을 시사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III. 연구방법

1. 근거이론접근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 이산 후 가족들이 경험하는 실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적응과 재결합에 대한 이론을 개발하는 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달성하고자 질적 연구방법 중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연구는 상당량 축적되어 왔지만, 정작 남북이산가족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이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경험 분석에 귀납적 성격을 갖는 근거이론이 적합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근거이론접근은 질적 방법 중에서도 현장으로부터의 자료에 근거를 두고 중범위 수준에서의 이론을 개발하는 목적을 지니는데,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실질적 수준에서의 기초적 이론을 탐색해 보고자 하는 본 연구의 성격과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아직까지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정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가 본격화·구체화되지 않았는데, 근거이론의 패러다임 모형 분석 등에 의해 이러한 요인들이 탐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거이론 접근은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관점에서의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 즉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문제 상황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밝히기 위해 1967년 Glaser와 Strauss에 의해 개발된 연구방법론(Schreiber & Stern, 2001)으로서 '현실기반이론' 또는 '현장이론'으로 불리기도 한다(조용환, 1999). 근거이론은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현상에 적합한 개념들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거나, 개념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특정한 현상에 적합한 변인과 그렇지 않은 변인들이 구체화되지 않은 경우, 이론적 기반이 갖추어지지 않은 분야들, 혹은 비록 기존이론이 있으나 수정되거나 명료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들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Strauss & Corbin, 1998).

근거이론은 탐색적 방법을 취하며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코딩하고 분석함으로써 개념과 속성을 나타낸다. 분석은 연구자와 자료 간의 상호작용인데, 연구자는 일정 수준의 엄격함과 창의적 능력을 가지고 적절한 범주를 명명화 하고 이론형성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질문과 비교를 통해 분석해 나간다. 근거이론 접근에서 체계적으로 이론을 개발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적으로 연구자는 이론적 민감성을 가지고 연구에 임하며, 이론적 표집(theoretical sampling)에 의거하여 참여자를 선정하고 자료수집과 동시에 자료분석을 진행하는 순환적인 과정을 거친다. 근거이론의 주된 분석방법은 지속적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으로서 이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 나가는 과정에서 출현한 개념들을 이전에 나온 개념들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내고 범주화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근거이론의 기본적인 분석과정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과 메모(memo)를 통해 이루어진다. 근거이론의 분석 결과로 패러다임 모형(paradigm model)이 제시되는데, 이는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중심현상(phenomenon), 맥락적 조건(contextual condition), 중재적 조건(intervening condition),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action), 결과(consequence)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0, 1998).

2. 연구진행과정

1) 연구자 준비

질적 연구접근에서는 연구자가 중요한 도구가 된다. 본 연구자는 자료수집과 자료분석과정에서 요구되는 이론적 민감성(theoretical sensitivity)의 증진을 위해 학술적 문헌과 비학술적 자료(신문·잡지기사, 수기, 비디오, TV 등)를 접하였으며, 인터넷 사이트 등의 내용을 탐색하였다. 또한 그 외에도 통일부 등 관련 정부부처의 자료실, 오두산 통일전담대 등을 방문하여 남북이산문제에 대한 연구 감각을 환기시켰으며, 북한이나 남북이산가족 관련 기관의 관계자 등과의 대화를 통하여 이 주제에 대한 실제적·상황적 감수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년을 이용하여 본 연구의 접근방법으로 채택한 근거이론 방법에 관한 강의를 수강함으로써 이 접근방법에 대한 체계화된 지식과 경험적 친숙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에서는 근거이론에서 활용되는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적합한 대상자를 인위적으로 표집 하는 이론적 표집, 그 중에서도 특히 개방적 표집(open sampling)과 관계적·변화적 표집(relational and variational sampling) 방법을 따랐다. 개방적 표집은 중심현상에 포함된 범주를 가능한 한 많이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연구 초기에 이루어지며, 관계적·변화적 표집은 분석과정에서 연구자료를 체계화하고 현상의 패러다임 모형 설정에 필요한 범주의 밀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채택된다(Strauss & Corbin, 1990, 1998). 본 연구에서는 연구 초기에는 다양한 범주(category), 속성(property)¹⁾ 및 차원(dimension)²⁾에 속하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한 개방적 표집을 시도하고자 남북이산가족 관련모임, 상봉경험이 있는 집단, 상봉경험이 없는 집단 등의 장면에서 표본을 추출하였다. 이후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차츰 관계적·변화적 표집으로 전환해가는 방식을 취하였다. 예컨대,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지체계나 개인적 가용자원이 많은 사람들을 찾기 위한 면접을 계획함으로써, 연구 초기에 많이 접하였던 지지체계가 제한된 사람들이나 자원이 적은 사람들과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 1세대로서, 한반도 분단, 자진 월남·월북,

- 1) 근거이론방법론에서 사용되는 범주의 특징으로서 범주를 정의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대한 서술이다.
- 2) 근거이론방법론에서 사용되는 범주의 일반적 속성이 변화하게 되는 범위이다.

강제남치나 의용군 강제 입대, 일본에서의 복송, 38도선에서 휴전선으로의 변경, 남북 및 북한 이탈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남한과 북한에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설정한 이유를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한에 거주하는 것으로 한정된 이유는 해외에 거주하는 '역외이산가족'(김귀옥, 2004:56)은 삶의 조건이 또 다른 양상을 띠므로 그에 따른 다른 접근이 요구되고, 또 북한에 거주하는 이산가족들은 접근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둘째, 이산 1세대로 한정된 것은 이산 2세대는 간접적으로 이산을 경험했기 때문이며, 또한 동시대집단 효과(cohort effect)에서 오는 영향력을 통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함하고 있다. 셋째, 다양한 원인에 의한 이산의 발생을 포괄적으로 고려한 이유는 남북이산가족의 개념이 확대되는 논의를 수용하려는 방향에서 시도된 것이다. 그러나 이 중 1990년대 이후의 탈북자나 분단에 의하지 않은 이산가족의 발생은 여기서 제외하고자 하였는데, 전자의 경우는 이산의 역사가 비교적 단기간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남북이산가족과 그 성격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였다. 먼저 서울 시내 및 수도권 지역의 남북이산가족관련 기관의 관계자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관계망을 통해 연구에 자발적으로 응해줄 수 있는 연구참여자가 있는지를 문의하여 소개를 받았다. 둘째, 인터넷상의 남북이산가족관련 모임 사이트를 3개³⁾ 선정 하여 연구자가 운영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연구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들의 가족 중에서 적합한 조건에 있는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자가 친분이 있는 주변사람들로부터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참여자를 소개받았다. 본 연구과정에서 연구참여자의 모집은 대상이 고령층이라 접근에 다소 제한이 있었고 자료를 수집하는 면접 과정에서 연구참여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여 이산 1세대에 대한 연구의 다답성과 질박성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3) 자료수집

본 연구에서의 자료수집은 개방적 표집과 관계적 표집에 의거하여 이루어졌다. 연구참여자는 총 30명으로서 개방적 표집에 의한 1차 연구참여자는 23명이었으며, 관계적 표집에 의한 2차 연구참여자는 7명이었다. 이들에 대한 1차 면접은 2003년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었다. 그 이후 2004년 7월부터 2005년 10월까지 실시된 후속면접에서는 1차

연구참여자 중에서 14명이 2차 면접에 참여하였고 5명이 3차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2차 연구참여자 중에서 2명이 2차 면접에 참여하였다. 2, 3차 면접은 1차 면접 후에 추가적으로 질문할 내용이나 1차 자료분석에서 확인된 범주들을 계속 탐구하기 위한 내용을 구조적인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면접시간과 장소는 연구참여자와의 협의 하에 편리한 시간과 장소로 선정하였다. 면접은 주로 연구참여자의 집, 연구자의 연구실에서 이루어졌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조용한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담시간은 보통 1회에 1시간 30분에서 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평균적인 면접시간은 약 120분 정도였다. 면접 내용은 휴대용 녹음기를 사용하여 녹음하였고, 면접 뒤 녹취한 내용을 2, 3차 면접 시 연구참여자에게 보여주었으며, 면담에서 확실하지 않았거나 불일치했던 내용을 추가로 질문하여 자료를 보강하였다.

초기의 면접 질문은 개방형 질문으로 "가족과 헤어지신 뒤 어떤 것을 경험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로 시작하였다. 이후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서 초기의 개방형 비구조화된 질문에서 폐쇄형 반구조화된 질문으로 옮겨가는 형식을 취하였다. 폐쇄형 반구조화된 질문의 예를 들어보면, "가족과 헤어지고 난 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가족과 헤어지고 나신 뒤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나요?", "이산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셨나요?"와 같은 질문들이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연구참여자에게 면접에 대한 느낌과 소감을 표현하고 추가적인 분석을 위해 차후에 다시 연락할 것을 전달하고 동의를 구하였다. 또한 면접 후 즉시 면접 시 연구참여자의 주요 특징과 이전 연구참여자와의 유사점과 차이점, 추후 질문방향 등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간단하게 메모하였다.

4) 연구의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연구목적과 연구과정, 비밀보장, 자료의 익명처리, 본 면접내용이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에 대한 약속 등의 내용을 담은 '면접참여동의서'를 작성하였다.

면접과정에서는 인적 사항에 대한 간단한 설문지를 작성한 뒤, 녹음에 대한 허락을 받고 본격적인 면접에 들어갔다. 연구참여자 신상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자만이 알고 녹음테이프나 녹취자료에는 연구참여자 번호를 붙여서 개인 신분에 관한 사항이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였다.

5)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0, 1998)이

3) www.kprk.com, www.etiger.co.kr, www.minjok.com

제시한 방법을 취하였다. 먼저 면접분석과정에서의 기본적인 방법인 질문하기와 비교하기를 활용하였다. 분석 시 연구자의 민감성을 증진할 수 있는 질문을 통해 자료를 보는 방식과 개념적인 질문을 형성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자료를 구체적으로 대조·비교하여 차이를 추출해내도록 노력하였다.

자료분석은 자료수집과 동시에 진행되었는데, 2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1단계는 원자료화 과정으로서, 녹취된 모든 면접내용을 연구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기술하였다. 자료의 텍스트량은 대개 한 연구참여자가당 A4용지로 30쪽에서 45쪽이었다.

2단계는 코딩작업으로서, 수집된 방대한 원자료의 정보를 설명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나타난 사건, 행동, 감정,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분해하고 조직화하였다. 코딩작업은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selective coding)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개방코딩에서는 자료에서 개념(concept)을 발견하여 명명하고, 유사하거나 관련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하위범주(subcategory)로 묶은 뒤, 그 하위범주들의 공통속성에 의해 떠오른 의미를 추상화시켜 범주를 추출해내었다(<표 2> 참조). 본 연구의 초기개념화 단계에서는 질적 연구경험이 있는 가족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과 별도로 명명화 작업을 한 뒤 차후에 만나서 상호비교, 검토해 나가면서 최종적인 개념들과 범주들을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축코딩에서는 한 범주의 축을 중심으로 범주를 속성과 차원의 수준에서 하위범주와 연결시키고, 범주분석(category analysis)과 과정분석(process analysis)을 시도하였다. 범주분석에서는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전략, 그리고 결과의 틀로 주요범주들이 서로 연결되는 패러다임(paradigm)을 구성하였다(<그림 1> 참조). 또한 과정분석에서는 맥락적 조건과 중재적 조건 등의 구조와, 시간에 따른 작용/상호작용의 변화를 살펴보는 과정을 결합하여, 단계들을 추출하였다(<그림 2> 참조). 마지막으로, 선택코딩에서는 이론적 통합(theoretical integration)을 위해 본 연구의 중심주제를 대변하는 핵심범주(core category)를 결정하고, 이야기 윤곽(story line)을 전개하였으며, 가설적인 관계진술문(relational statement)을 작성한 뒤, 유형화(<그림 3> 참조)를 시도하였다.

3. 연구방법에 대한 평가

질적 연구들은 일반적으로 연구설계와 윤리를 통합해서 평가되는 경향이 있으며, 질적 연구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

방법의 양호성(goodness)을 평가하는 기준을 얼마나 충족시켰는지 서술하도록 권장된다(Creswell, 1998:197-201; Heshusius, 1990; Marshall, 1990).

본 연구에서는 Lincoln과 Guba(1985)가 신뢰성(trustworthiness)의 기준으로 제시한, 신빙성(credibility), 이전성(transferability), 의존성(dependability), 확인성(confirmability)을 고려하여 이를 충족시키는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신빙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자료분석과 글쓰기를 마친 뒤, 연구참여자 30명 중 23인(4)에게 연구자가 이들이 경험하는 현상과 적용과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그리고 패러다임 모형의 개념과 범주명이 현상을 잘 드러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 결과를 정리하여 우편물로 전달한 뒤 간단한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그들이 경험하는 적용과정에서의 전후 상황에 대한 설명이 잘못되었거나 연구자의 해석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이산 1세대 5인(5)에게 본 연구결과물을 보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연구 결과가 본인에게도 적용가능한지를 검토하도록 부탁하였다. 의존성을 고려해서는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가족의 적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가족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 근거이론 방법론으로 가족현상 관련 연구를 수행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질적 연구방법론으로 북한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사회학 박사학위 소지자 1명, 질적 연구방법론 수강 경험이 있는 간호학 전공 박사과정생 1명에게 자문을 받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쳤다. 확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기존 연구결과들을 증명하려 하거나 시각을 반영하려는 의도 없이 연구에 임하였으며, 가능한 한 근거이론 방법에 따른 절차와 분석과정에 충실함으로써 연구의 엄밀성을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IV. 연구결과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 수는 총 30명으로 참여자들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성별분포는 남자가 26명, 여

- 4) 연구참여자 중 4인은 사망하였고, 3인은 외국과 지방에 거주하여 연락이 닿지 않아 이들에게서는 검증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 5) 본 연구의 분석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았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번호	성별	연령	출신지역	이산 시기	동행가족	이산가족
1	남	77	평양	1950년 10월	가족	큰형
2	남	73	평북 운산	1950년 12월	단신	부모, 남동생, 여동생
3	남	68	함남 청진	1950년 12월	아버지	어머니, 동생
4	남	69	평양	1950년 12월	단신	부모, 동생
5	남	76	황해 개성	1951년 01월	단신	부모, 형, 동생
6	남	68	충청 서산	1951년 01월	가족	큰형(남북)
7	남	84	함남 청진	1951년 01월	동생들	부모, 형
8	남	68	함남 함흥	1951년 01월	큰형, 둘째형	부모
9	남	69	평양	1948년 05월	작은아버지, 큰형	부모
10	남	80	함남 함흥	1948년 01월	단신	어머니, 부인, 딸, 동생
11	남	70	황해 벽성	1951년 01월	단신	부모, 형, 동생
12	남	69	함남 원산	1950년 12월	단신	형
13	남	77	함남 북청	1955년 01월	부모, 형제	누나들, 조카(일본에서 복송)
14	남	72	함남 전평	1950년 12월	단신	부모
15	남	69	함남 북청	1951년 01월	아버지	어머니, 여동생
16	남	83	함남 홍남	1950년 12월	큰형	부모, 여동생
17	여	85	강원 통천	1952년 08월	오빠	부모, 언니, 남동생
18	여	87	강원 고성	1950년 12월	부모	오빠
19	여	75	함북 성진	1951년 06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언니
20	남	78	함남 홍원	1951년 01월	작은형	부모, 큰 형
21	남	82	황해 은돌	1950년 12월	단신	부모, 부인, 여동생
22	남	81	함남 영흥	1950년 12월	단신	부모, 형제
23	남	82	함북 명천	1950년 12월	동생	부모, 여동생
24	남	76	황해 송화	1948년 02월	형	부모, 부인, 여동생
25	남	76	함남 북청	1951년 01월	단신	부모, 형, 누나
26	남	74	함북 명천	1950년 12월	단신	부모, 여동생
27	남	72	황해 황주	1950년 12월	단신	부모, 누나, 여동생
28	남	71	함남 이원	1951년 02월	가족	여동생
29	남	70	강원 양양	1953년 10월	단신	부모, 큰형, 여동생
30	여	67	함남 안변	1950년 12월	아버지	어머니, 오빠

자가 4명으로 남자에게 편중되어 있다. 연령분포는 67세에서 87세로 평균연령은 74.9세인데 이는 이산 당시 20대 중반으로서 이산이 주로 청년층에서 이루어졌음(김성은, 1995; Kwon, 1977)을 의미한다. 출신지역은 평양 3명, 평북 1명, 함북 3명, 함남 14명, 황해 5명, 강원 3명, 충청 1명으로 함경남도 출신에 집중되어 있다. 이산 시기는 해방 이후 한국전쟁 전 3명, 한국전쟁 발발 직후부터 1951년 1·4후퇴 전까지 14명, 1·4후퇴 때 8명, 1·4후퇴 이후 종전까지 4명, 종전 이후 1명이다. 동행가족은 단신이 13명, 아버지 4명, 형 4명, 동생 2명, 오빠 1명, 작은 아버지와 큰 형 1명, 부모 1명, 부모와 형제 1명, 가족 3명이었다.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는 단신의 이산보다 가족원과 함께 이산한 경우가 다소 많았다. 이산가족에는 부모가 포함된 경우가 19명,

어머니가 포함된 경우가 5명, 남자 형제가 포함된 경우가 17명, 여자 형제가 포함된 경우가 14명, 부인이 포함된 경우가 3명, 딸이 포함된 경우가 1명이었다. 이산대상에는 여성들이 주로 많이 나타난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2.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대한 범주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자료를 개방코딩으로 분석한 결과, 패러다임 모형의 각 단계에 대하여 21개의 범주와 3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175개의 개념이 도출되었다(<표 2> 참조).

<표 2>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에 의한 개념화 및 범주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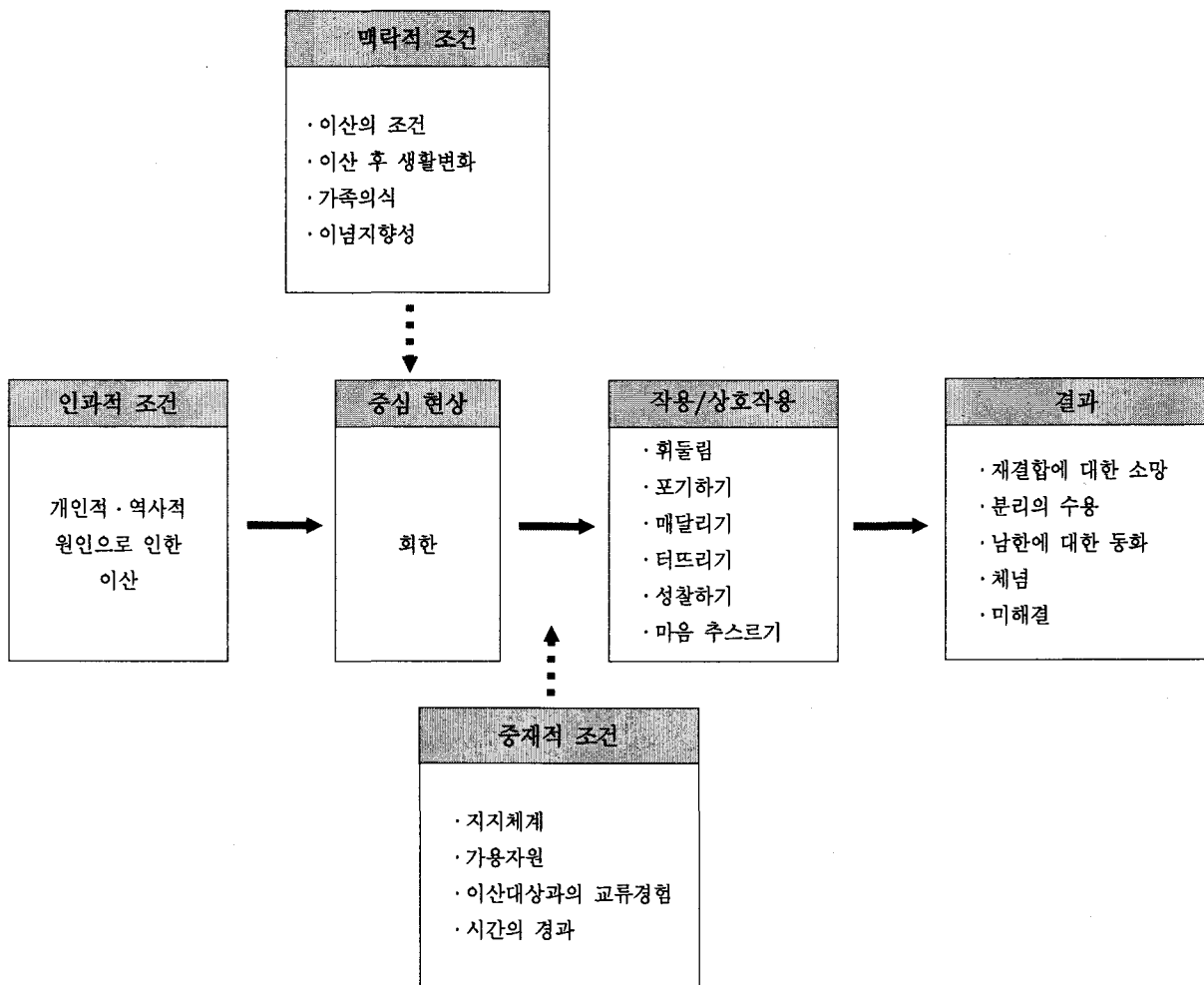
범주	하위범주	개념	속성	차원
인과적 조건	정치적·사상적 동기	반공산주의 이념, 사상의 자유 추구, 종교적 탄압 회피, 엘리트층 의식(연구참여자 26, 27)		
	개인적·역사적 원인으로 인한 이산	남북 간 왕래, 평화롭게 집을 떠남, 예상치 못한 38도선의 설정(연구참여자 9, 10)	강도	강함↔약함
	전쟁의 발발	전쟁의 혼란, 군 작전 수행, 피난, 고난, 학살 공포, 생존에 대한 두려움(연구참여자, 2, 4, 7, 14, 20, 21, 22, 25, 26)		
	생이별의 경험	월남, 남북(연구참여자 6), 북송(연구참여자 13)		
중심 현상	심리적 고통	두고 온 혈육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가지 못하는 아쉬움, 생사 여부도 확인 못하는 안타까움,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애감(연구참여자 1, 5, 16, 29)		
	죄책감	북한에 가족을 버리고 왔다는 느낌,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는 책임감, 현재 가족에게만 충실 하는 자신의 이기성, 북한의 경제적 궁핍(연구참여자 10, 21, 24, 29)		
	좌절감	노화에 대한 우울감, 죽기 전에 고향에 못 갈 것 같은 초조감, 상봉신청에서 밀리는 데 대한 속상함(연구참여자 2, 4, 10, 19)	강도 연속성	강함↔약함 지속적↔일시적
	분노감	자신의 운명에 대한 원망감, 공산정권에 대한 노여움(연구참여자 3, 15, 17)		
	피해의식	역사적 비극에 희생되었다는 느낌, 남쪽 출신에 대한 부러움(연구참여자 14, 22)		
이산의 조건	양가감정	부모님 생존에 대한 포기, 통일 후 찾아올 혼란에 대한 착각함, 반공 전력이 북쪽 가족에게 미칠 영향, 변화에 대한 두려움,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담감(연구참여자 3, 11, 15, 26, 27)		
	이산 당시의 상황	이산의 비예측성, 이산 당시 연령, 단신 월남, 동행가족, 결혼 지위(연구참여자 9, 10, 21, 24, 28)	정도	양호↔열악
맥락적 조건	이산 후 생활변화	이산된 가족원의 비중과 위치, 이산된 가족원의 수, 생존가능성(연구참여자 5, 6, 13, 17, 30)		
	생존경쟁	피난민 생활, 극심한 빈곤, 잦은 주거 이동, 기회 박탈, 험난한 고생, 박대, 신분 하강(연구참여자 2, 4, 8, 9, 14, 21, 25)		
	연고관계	친척 지원, 동향모임, '38따라지'의식(연구참여자 9, 22, 27)	조건	양호↔열악
가족의식	정착노력	성공에의 의지, 북한출신의 강인성, 직업의 전전, 사업, 결혼 혹은 재혼, 남한에서의 가족 구성(연구참여자 8, 14, 26, 27)		
	가족주의 가치	부모에 대한 효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혈연의식, 가(家)계승 의식, 자식에게는 빈곤을 물려주고 싶지 않음, 개인에 대한 가족우선성(연구참여자 1, 3, 11, 14, 16, 27)	강도	강함↔약함
이념지향성	가족정체성	뿌리의식, 물리적 분리를 뛰어넘는 가족의식, 남·북한 양쪽 가족에 대한 소속감, 가족유대감의 균열(연구참여자 7, 12, 20, 24)		
	이념적 부담감	반공전사로서 비치는 것에 대한 부담, 생존차원의 선택, 이념에 대한 인간사의 우위(연구참여자 20, 24)	강도	강함↔약함
중재적 조건	정치적 보수성	사회혼란과 변화에 대한 두려움, 공산주의자에 대한 증오, 전쟁 경험의 교훈(연구참여자 11, 26, 27)		
	지지체계	안정과 정착의 기반, 일차적 소속감, 장기간 구축된 관계, 익숙함, 정신적·물질적 의지처(연구참여자 9, 14, 22, 27)	수준 양	높음↔낮음 많음↔적음

<표 2> 계속

범주	하위범주	개념	속성	차원	
지지체계	현재가족의 안정성	안정과 정착의 기반, 일차적 소속감, 장기간 구축된 관계, 익숙함, 정신적·물질적 의지처(연구참여자 9, 14, 22, 27)	수준 양	높음↔낮음 많음↔적음	
	사회관계망의 지원	친척, 인척, 친구, 종교모임, 자원봉사모임, 이웃(연구참여자 1, 13, 27, 28)			
	타 이산가족과의 유대	동향조직, 이산가족모임, 정보교환과 교류, 동질감(연구참여자 13, 18, 23, 25)			
증재적 조건	재산	직장에 충실했음, 먹고 살만한 재산 구축, 기반 마련, 무연고로 자리 잡기 어려웠음(연구참여자 2, 10, 11, 12, 21)	수준 양	높음↔낮음 많음↔적음	
	성격	낙천성, 현실적응력, 성숙 수준, 목표의식, 성실성, 자신감 없음, 열등감(연구참여자 9, 15, 20, 24, 27)			
	건강	체력관리, 건강에 대한 관심, 노화로 인한 쇠약, 기력 없음, 거동 불편, 죽음에 대한 공포(연구참여자 4, 5, 14, 28)			
	지력	기억력, 사리분별, 주변에 대한 관심(연구참여자 3, 20, 23)			
이산대상과의 교류 경험	이산대상과의 연락	서신교환, 생사여부 확인, 연락 두절(연구참여자 13, 18, 30)	양 강도	많음↔적음 강함↔약함	
	상봉체험	상봉의 감격, 정신적 긴장, 심리적 흥분, 핏줄의식의 유지, 소원 달성, 세월의 무상함, 너무 짧은 재회에 대한 안타까움, 낯설게 느껴짐, 이질성의 확인, 실망, 연민,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감, 착잡감(연구참여자 4, 6, 11, 14, 21, 24, 28)			
시간의 경과	-	현재 상황에 익숙해짐, 동화, 예전 기억의 약화(연구참여자 26, 27)	기간	오래됨↔짧음	
작용 / 상호 작용	휘둘림	혼란	처지의 어려움, 방향, 뿌리 뽑힌 느낌(연구참여자 2, 17)	연속성 빈도	지속적↔일시적 찾다↔드물다
		통제감 결여	속수무책의 느낌, 막막함, 무력감, 현실을 대처해 나갈 엄두가 나지 않음(연구참여자 19, 30)		
	포기하기	-	상황에 대한 변명, 이산가족원 존재에 대한 회피 감정, 생각 덮어두기(연구참여자 1, 2, 7, 12, 16, 29)	연속성 빈도	지속적↔일시적 찾다↔드물다
	매달리기	-	이산가족원의 생사 확인, 실랑민 모임이나 행사 참여, 북한 관련 일에 집착(연구참여자 5, 8, 9, 11, 19, 23)	연속성 빈도	지속적↔일시적 찾다↔드물다
	터뜨리기	-	감정해소 행동, 북한 가까운 곳에 가서 울기, 동향친구들과 만나 울분 토로, 항의 행동(좌경단체, 정부)(연구참여자 3, 10, 15, 17, 25, 26, 30)	연속성 빈도	지속적↔일시적 찾다↔드물다
	성찰하기	-	상황 인식, 자기 삶에 대한 반성, 현실적 지각(연구참여자 4, 6, 11, 13, 14, 15, 18, 21, 24, 28, 30)	연속성 빈도	지속적↔일시적 찾다↔드물다
	마음 추스르기	자기통제	자기감정의 통제, 긍정적으로 자신을 달래기, 안정 상태 유지 노력(연구참여자 14, 20)	연속성 빈도	지속적↔일시적 찾다↔드물다
		자기수용	자기 경험의 재해석, 역경을 통해 단련되었다는 의식(연구참여자 20, 24)		
	재결합에 대한 소망	재회노력의 추진	귀소본능 정리, 한가족 의식 회복 노력, 후속세대에게 부탁(연구참여자 11, 20, 24)	-	-
	결과	분리의 수용	분리된 상황 불변에 대한 인정, 두 개의 가족에 대한 수용(연구참여자 16, 20, 24)	-	-
	남한에 대한 동화	기반으로서의 남한 인정	남한에 대한 모국의식, 통일 이후에도 계속 남한 거주 의사, 안정에 대한 회귀(연구참여자 12, 21, 27)	-	-

<표 2> 계속

	범주	하위범주	개념	속성	차원
결과	남한에 대한 동화	북한에 대한 거부감	북한 정권에 대한 불만, 이질화된 생활문화에 대한 부정적 반응, 주민통제에 대한 거부감(연구참여자 26, 27)	-	-
	체념	재회의지의 약화	재회가능성에 대한 신념의 약화, 기회의 제한에 대한 위축감, 일회적 재회에 대한 불만, 재회 후 상황불변 예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연구참여자 21, 24)	-	-
	미해결	감정의 혼란	충성심의 갈등, 인생에 대한 허망감(연구참여자 7, 22)	-	-
		두려움	통일 이후에 겪을 혼란에 대한 두려움, 고향에 대해 낯선 감정, 이산가족원의 변화된 모습에 대한 두려움(연구참여자 7, 15, 27)	-	-



<그림 1>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관한 패러다임 모형

그 이후, 본 연구에서는 개방코딩의 과정을 통해 분해되었던 자료에 대해 축코딩을 실시하여 범주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로 연결시키고, 이 범주들을 인과적 조건, 중심현상, 선택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로 구성하는 패러다임 모형을 구축하였다(<표

2> 참조).

<그림 1>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대한 패러다임 모형을 도식화한 것이다. 이 모형에 의한 범주분석은 남북이산가족이 경험하는 중심적인 현상과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 관련되는 요인들을 전반적으로 제시하여 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인적·역사적 원인으로 인한 이산’이라는 인과적 조건은 ‘회환’이라는 남북이산가족이 경험하는 중심적인 현상에 영향을 준 사건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을 야기하는 맥락적 조건은 ‘이산의 조건’, ‘이산 후 생활변화’, ‘가족의식’, ‘이념지향성’ 등이었으며, ‘지지체계’, ‘가용자원’, ‘이산대상과의 교류 경험’, ‘시간의 경과’ 등의 중재적 조건에 따라 ‘회환’현상이 변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들은 ‘회환’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휘둘림’, ‘포기하기’, ‘매달리기’, ‘터뜨리기’, ‘성찰하기’, ‘마음 추스르기’와 같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재결합에 대한 소망’, ‘분리의 수용’, ‘현실에 대한 동화’, ‘체념’, ‘미해결’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3.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정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정과 이에 기여하는 주요요인들을 분석하고자 과정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의 적응에 대한 과정분석을 실시한 결과,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정은 다음과 같이 압도단계, 갈등단계, 각성단계, 긍정단계로 구체화될 수 있다. 다음에서는 각 단계에 대한 설명과 연구참여자들의 사례를 제시한다.

1) 압도단계

많은 연구참여자들은 이산으로 인한 분리를 예기치 않게 경험하였고 돌발적 분단에 의해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된 것에 속수무책의 상태였다. 이러한 상태는 월남 동기의 자발성이나 월남 시기, 이산의 예측성 정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었다. 반공산주의 이념이나 지주계급이라고 받았던 탄압, 종교적 박해 등을 이유로 자진 월남을 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선택에 따른 상황이었기에 대응하는 것에도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었다(연구참여자 26, 27). 하지만, 해방 이후 38선 설정 전까지 남북 간 상호왕래가 이루어졌던 상황에서 생활상의 이유나 학업, 또는 친척 방문 등을 이유로 북한에 있는 집을 떠나 남한에 머무르던 중에 발생한 이산은 자발적인 월남은 아니었기에 이산의 경험이 더욱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었다.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가족과 이산을 경험했다는 점에서 이들은 전쟁의 극심한 혼란 중에 피난을 하는 과정에서 이산을 경험했던 사람들과도 다소 다른 상태를 경험하였다(연구참여자 9, 10). 물론 전쟁 중 월남을 해야 했던 사람들 중에는 자신들의 선택이 몰고 올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수였다(연구참여자 2, 7, 14, 20, 21, 22, 25, 26, 27). 일단 위험을 피하고 나중에 가족과 합류하겠다는 생각으로 가족과 헤어졌다가 반세기 넘게 이산을 경험하

게 된 사람들도 많았다.

아침에 집사람하고 간난쟁이였던 딸에게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어. 인천에 있는 작은 아버지집에서 머물면서 도와드릴 일이 생겼거든. 한 달 정도 있다가 일 끝나면 돌아올 것이었는데 그 일이 좀 늦어져서 하다보니 집에 못 갔는데 그 와중에 덜컥 38선이라는 것이 생겨 평소엔 멀쩡히 다니던 길로 못 간다는 거야, 원 세상에 그렇게 해서 이 한 많은 인생이 시작된 거지... (연구참여자 10).

그 때 우리 마을에 반공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중공군이 몰려오면 학살당할 것이고, 원자폭탄이 투하될 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짝 퍼졌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나더러 아무래도 너만이라도 먼저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생각에, 그래 일단 나 먼저 내려갔다가 사정 봐서 다시 올라오지 하고 아주 간단한 옷가지 싸서 그냥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헤어진 세월이 벌써 50년이 넘었어요...(연구참여자 2).

그리하여 이들은 이산을 경험한 후 겪은 열악한 생존의 조건들로 이들은 상황에 압도당하는 방향으로 몰려가게 되었다. 특히 동행가족이나 남한에 연고 없이 단신으로 월남하게 된 사람의 처지는 가장 혹독하였는데, 극심한 가난과 이북 출신에 대한 차별과 박대, 생존을 위해 밀바닥 직업을 전전해야 했던 어려운 시절을 경험하였다.

달랑 내 몸 하나 내려와 사방천지에 누구 아는 사람도 없고... 도움은커녕 몸동아리 하나 비밀 친척 한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미군부대 앞에서 슈사인보이(구두다이)라도 할라치면 그것도 자리 경쟁이 붙어 싶지 않고, 게다가 내가 이북 출신이라고 언어터지기 일쑤이고. 난 그 때 아무 생각도 없었어. 그냥 하루 벌어 겨우 먹고, 아니 굶는 날이 더 많았지... 그냥 거기 갈이라도 살아남으면 언젠가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얼굴이라도 한 번 보려나 싶었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기는 한건가 싶었고...(연구참여자 4).

이 단계를 경험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사실상 의지할 수 있는 자원도 박탈되거나 제한되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생존을 염려하면서 상황에 떠밀려가는 경험을 하였다.

요컨대, 연구참여자들은 이 단계에서는 맥락적 조건 중에서는 ‘이산의 조건’, ‘이산 후 생활변화’의 영향을 상대

적으로 많이 받고, 또 한편으로는 '지지체계', '가용자원'이라는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회환'이라는 현상에 대해 '휘둘림'이라는 작용/상호작용의 반응을 함으로써 이 단계를 거쳐나간다.

2) 갈등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초기 압도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포기하거나 반대로 매달리거나 아니면 그동안 억눌린 것을 터뜨리기도 하면서 상황에 대응하는 갈등단계를 경험한다.

이산을 경험한 가족들은 심리적 측면에서는 쉽게 정리될 수 없는 미해결의 난제들을 항상 부둥켜안고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많은 내적 갈등을 경험했다. 우선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분단 상황을 지켜보면서 무기력하고 답답해지는 심정에서 '포기하는'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는 연구참여자들도 상당수 있었다(연구참여자 1, 2, 7, 12, 16, 29).

난 남들처럼 어머니 생사를 알지도 못해, 북한에 살 때 내 전력 때문에 어머니랑 동생이 고생을 해서 벌써 돌아가신 건지...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난 어떤 때는 생각을 포기하게 돼. 생각하면 가슴이 터지고 멍이 들어버려서 오히려 생각을 안 해보려고 할 때가 있었지...(연구참여자 2).

이러한 경우와는 달리 이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에서 가능한 모든 것을 시도해보면서 '매달리는' 경우들도 눈에 띄었다(연구참여자 5, 8, 9, 11, 19, 23).

내가 통일부고 적십자사고 어디 안 가본데 없어. 그래도 난 우리 어머니 만나는 거 포기 안 해. 남들이 날더러 극성이다 해도 평남출신 모임 회장도 하고 어디에 북한에서 나온 물건 있다 하면 안 사는 것 없고... 금강산 여행도 두 번이나 갔다 왔지. 영 울 적하면, 북한 출신 내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고향이야기 한 번이라도 더 하려구 하지... (연구참여자 9).

또한 이 단계에서는 감정이 폭발하거나 의도적이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취하게 되는 양상도 보인다. 그동안 갈등을 느끼면서 억누르던 것을 '터뜨리는' 행위로서 자신의 처지를 견디어온 경험을 밝힌 연구참여자들(연구참여자 3, 10, 15, 17, 25, 26, 30)이 다수 있었다.

살아있으면 벌써 환갑 나이가 되었을 내 딸 아이, 얼굴 한 번 죽으면 소원이 없겠어. 애비 노릇도 못 하

고. 지난 번 여기서 낳은 자식들이 내 죽고 나면 내 재산 어찌 상속할 것인가로 다투길래 내가 마구 역정을 내었어. 너희 녀석들 하나 안 준다, 피눈물 나게 모은 돈, 북에서 애비 없이 고생하고 자랐을 우리 ○○(북한에 있는 딸 이름) 다 주니까 꿈도 꾸지 말라고 소리, 소리쳤지(연구참여자 10).

내 핏줄이라곤 단 하나, 오라버니가 세상을 뜨니 세상 천지에 나 혼자 남은 것 같아. 내가 겪은 고생은 말도 못해... 남의 집 살이 가서 구박도 엄청 받고, 제대로 된 결혼도 못 하고 남편 만나서 또 고생하고... 그러니 오빠 죽고 나서는 의지할 것도 없는데... 얼마나 가슴이 터지고 힘드는지 기력 없어 운신도 못했던 내가 임진각인가 판문점인가 근처까지 어찌어찌 가서는 엉엉 막 소리 내어 울었어...(연구참여자 17).

정말 한 많은 세월이지... 내 이렇게 고생하게 된 이유가 뭔가 싶으니 다 빨갱이들 잘못이지, 그래서 난 요즘 젊은애들, 세상 바뀌었다고 떠드는 걸 보면 도저히 못 참겠어. 전쟁이 다 누구 때문에 생겼는데, 다 빨갱이들 탓 아니야? 어떤 땐 일부러 빨갱이 규탄하는 데모 찾아다니곤 해. 가서 나도 막 소리치고 오면 그래도 좀 분이 풀리거든(연구참여자 26).

이상과 같이 살펴본 갈등단계를 정리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이 단계에서 '이산의 조건', '이산 후 생활변화', '가족의식', '이념지향성'의 맥락적 조건과, '지지체계', '가용자원'이라는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회환'이라는 현상에 대해 '포기하기', '매달리기', '터뜨리기' 등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통해 이 단계를 거쳐나간다.

3) 각성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시간이 경과하여 이산이 보다 장기화되고 상황변수들이 등장하게 됨에 따라 점차 다른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한다. 즉 연구참여자들은 자기 현실과 처지를 검토하고 '성찰해보는' 기회를 마주하게 된다. 한편으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이산 당시의 상황과 달라지는 많은 변화가 연구참여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들이 대부분 고령화되어 가면서 자신의 일생을 검토해 보는 발달적 연령에 접어드는 것도 자기검토와 직면의 기회를 제공하는 이유로 여겨진다.

내 나이 벌써 일흔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했던 것

이 운명이라면 운명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무슨 의미가 있었겠지 싶어서... 그냥 내 인생 한 번 되돌아봐야겠다 싶은 거지(연구참여자 15).

특히 연구참여자들의 변화에 주목할 만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중재적 조건 중 이산대상과의 교류 경험이다. 이산대상과의 교류경험은 그동안 생사를 알지 못해 안타까웠던 연구참여자로서 하여금 성찰의 계기를 마련하여 현실 인식과 자각을 통해 각성단계로 진입하게 만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상봉은 못하더라도 서신교환을 통해 생사를 확인할 수 있었던 연구참여자들(연구참여자 13, 18, 30)은 이러한 기회를 통하여 안타까움을 해소하고 그나마 지나온 세월을 보상받는 느낌과 재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품을 수 있었다.

어찌 다행으로 오히려 편지가 달게 되어 소식을 알 수 있었지요. 어떤 땐 생각하면 가슴 무너지지만 그래도 소식을 모르는 것보다 더 나은 것 같기도 해요. 평생 속 끓고 살았는데, 마음 정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연구참여자 30).

하지만 직접적인 상봉의 체험은 연구참여자들에게 이중적으로 엇갈리는 양상을 제공하기도 한다. 감격적인 재회를 경험함으로써 평생의 한을 풀었다고 위로하는 경우(연구참여자 4, 6, 11, 14)도 있었지만, 그 상봉으로 인해 오히려 재결합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불투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된 경우(연구참여자 21, 24, 28)도 있었다.

우린 죽었다 생각한 큰 형이 떡커니 살아 돌아오니 얼마나 감격적인지 말도 못했어요. 내 나이 열 살 남짓에 헤어진 형을 다 늙어 서로 할아버지 되어 만나니 이게 도대체 무언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혈육의 정이 끈끈해서 손 붙들고 마냥 울었어요(연구참여자 6).

그냥 내 평생 한을 푸는 느낌이었어. 우리 동생에겐 내 차고 간 시계도 풀어주고 왔어. 그냥 아우 보는 순간부터 눈물이 흐르는데 주체 할 수가 없어... 북쪽에서 반공 활동한 이 형 때문에 나 내려오고 나서 고생도 참 많이 했다 하니 참 미안한 마음도 들고...(연구참여자 11).

이북 간 게 오히려 내 가슴에 더 큰 멍을 들게 해...

그 사람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니요. 나는 남에서 아내 생각에 장가도 안 가고 마흔 넘어 할 수 없이 겨우 장가들었어요. 이야기도 없이 목석처럼 앉아 있는데 말이 막히고 가슴이 무너져 난 한동안 우느라고 아무 말도 못했지. 그런데도 그런 나를 묵묵히 쳐다봐요... 소 닭 쳐다보는 듯...(연구참여자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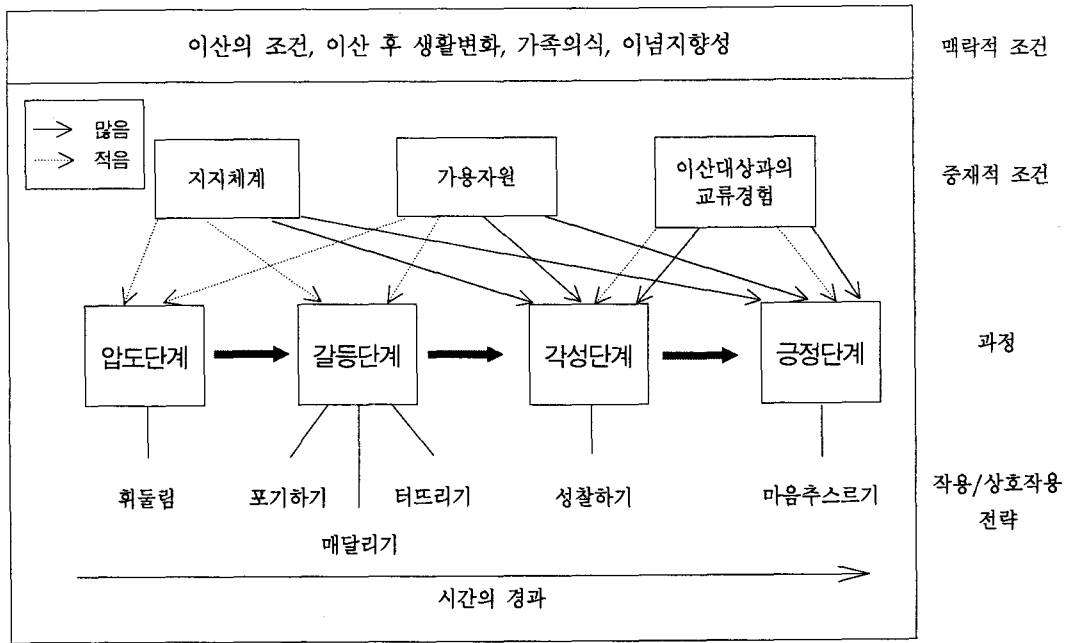
그 착하고 순하던 내 누이가... 처음엔 지도 감정에 겨워 눈물 한참 쏟더니만 정신 차리고 나선 글썽, 오라버니, 우리 이렇게라도 만나는 건 다 위대하신 수령님과 지도자 동지 때문이라는 거야, 내 참 기가 막혀... 만나는 내내 말끝마다 수령님, 지도자 동지 하니 난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었어... 어, 야하고는 이제 다시 만나도 같이 살 것나 싶은 거지... 마치 남이요... (연구참여자 28).

지금까지 언급한 각성단계를 요약해 보면,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의식', '이념지향성'이라는 맥락적 조건의 상대적 영향을 많이 받고, '지지체계', '가용자원', '이산대상과의 교류 경험'과 같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회한' 현상에 대해 주로 '성찰하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해 이 단계를 거쳐 나간다.

4) 긍정단계

연구참여자들은 이산을 겪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새롭게 재조명해보는 체험을 통하여 이산의 현실을 수용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상태는 '마음 추스르기'의 전략을 통해 달성이 되는데, 자기통제와 더 나아가 삶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 이산의 현실을 딛고 자신의 방향을 재정립해보게 만든다. 여기에서는 자기감정을 통제하거나 긍정적으로 자신을 달래는 상태로 나아가 심리적 안정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이산을 통해 남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하여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긍정한다. 이산을 경험함으로써 평생 '한을 품고 사는'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역경을 통해 단련되었다는 의식은 이들에게 자존감을 부여하며, 이산 경험을 포함하여 자신의 삶 전체가 자신의 인생으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며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인정하게 한다(연구참여자 14, 20).

누구나 다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고, 난 좀 더 특별히 힘들게 살아온 거지. 북에 계셨던 내 부모님, 아마 다 돌아가셨을 터인데... 고향 떠나 사느라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지... 이만하면 되었다 싶은 거



<그림 2>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대한 과정분석

야(연구참여자 14).

이러한 긍정의 단계에 이르는 연구참여자들 중에는 자신이 살아오는 과정 전반을 반성하는 가운데 이념을 넘어 서서 인생에서 과연 가장 중요하고 진정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근원적인 질문을 제기하는 경우(연구참여자 24)도 있었다.

인생 많이 살고 나니 그래도 내 인생 헛살았다 싶지는 않지만, 이념보다 더 중요한 게 무언가 하는 질문을 종종 하게 돼. 그리고 사실상 난 반공전사가 아니요. 해방 전 월남한 사람들은 대개 자기들이 빨갱이 싫어 내려왔다 하지만 그들 중에는 다른 이유로 내려와 놓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았어. 역사 공부 제대로 하게 하려면 밝혀야 할 것도 있어요...(연구참여자 24).

이렇게 이산의 현실 수용과 자신의 인생을 긍정하는 태도 안에서 이산가족의 재결합은 여전히 이들에게 하나의 소망으로서 자리 잡고 있다. 그들은 이산된 가족을 만나야 하는 것을 인생의 숙명적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당장 실현될 수 없는 재결합의 현실을 수용하고 다만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현실을 재 정비하고자 한다.

여전히 헤어진 가족 만나는 건 내게 숙제야. 하지만

내가 그 숙제 못 풀고 죽었다고 내 인생이 잘못 된 아냐. 내 잘못이 아니라 시대가 그런 거고. 다만 내 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열심히 살고. 재결합? 어떻게라도 노력해 봐야지(연구참여자 20).

이산의 긍정단계를 요약해보면, 연구참여자들은 '가족의식', '이념지향성'의 맥락적 조건과 '지지체계', '가용자원', '이산대상과의 교류 경험'과 같은 중재적 조건의 영향을 받으면서, '회한' 현상에 대해 '마음 추스르기'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사용해 이 단계를 거쳐 나간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대한 과정분석(6)을 도식화하면 <그림 2>와 같다.

4.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대한 이론적 통합

1) 핵심범주: '이산을 수용하고 재결합을 향한 현실을 재정비함'

핵심범주는 그 연구의 중심주제를 대변하며, "이 연구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으로 모든 분석요소를 응축시킨 몇몇 단어로 구성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산으로 인한 분리를 경험하였고 그로 인하여 비극적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이들

6) 이 과정분석에서 제시된 단계들은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한 일반적인 모델로서 개별 연구참여자들 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 단계들을 모두 거쳐나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은 이산 이후 열악한 생존의 조건들로 상황에 압도되는 방향으로 물리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헤쳐 나가야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박탈되고 제한되는 대우를 받아야 했고 심리적으로도 극심한 고통을 겪어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남한 사회에서 살아남고자 생존투쟁의 차원에 뛰어들었으며 그러한 과정에서 나름대로의 기반을 형성해 가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가슴 속에서는 항상 이산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자신들의 근원인 고향을 찾아갈 수 없는 이별과 실향의 아픔이 한(恨)이 되어 맺히는 세월을 살아왔다.

분단이라는 역사적 비극으로 야기된 가족의 이산에 대처해서 살아오는 동안 갖은 간난과 고통을 겪어왔지만, 반세기 넘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은 남한 사회에 정착하게 되고 서서히 동화해 가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를 만나기도 한다. 장기화되는 이산에 따라 남한과 북한, 다른 두 체제에 분리되어 살아가게 된 가족들은 이제 이질화되어갈 가능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한 가족으로서의 의식이나 가족정체성 등도 의문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이산 1세대인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처지에 대한 자각과 이미 고통에 이른 자신의 인생에 대한 성찰을 통해 이산의 현실을 수용하고 평생의 숙원이었던 이산가족과의 재결합에 대한 염원과 소망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그들은 이산으로 인한 과거를 자신의 인생 안으로 통합하고 현재의 시점에서 재결합을 둘러싼 앞으로의 방향을 모색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이산 1세대가 이산 이후 생활경험 속에서 적응해가는 핵심범주는 '이산을 수용하고 재결합을 향한 현실을 재정비'해 나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2) 이야기 윤곽

이야기 윤곽은 연구의 중심현상에 대한 이야기를 개념화하는 것(Strauss & Corbin, 1990)으로, 이는 "여기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몇 개의 서술적 문장을 적는 것이다. 이야기 윤곽은 연구의 중심현상과 각 범주 간의 관계를 서술적으로 기술하는 것에 근거한다(Strauss & Corbin, 1998). 본 연구에서 발견된 이야기 윤곽은 다음과 같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이산 1세대들은 정치적·사상적 동기나 개인적인 이유들로 월남을 해 돌발적 분단에 의해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거나, 전쟁의 발발로 피난하는 과정에서 가족과 헤어짐으로써 반세기 넘는 기간을 이산의 상태로 살아왔다.

이산 1세대들은 이산 이후 한 마디로 '한(恨)을 품는'

세월을 살았다. 이들이 이산으로 한 많은 세월을 경험하는데는 이산 당시의 상황이나 이산의 대상에 따른 이산의 조건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단신 월남해서 살아온 경우는 더 힘든 세월을 보내야 했고 누구와 이별했는가는 그 이후의 시간들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산 후의 생활에서는 연고자를 통한 정착노력 등을 하는 가운데 극심한 생존경쟁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이산의 시간 동안 이산 1세대들은 가족의식이나 이념지향성 등의 영향을 받아왔다.

이산 1세대가 적응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시간의 경과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다. 일차적 소속감을 갖게 하고 안정과 정착의 기반을 제공하며 정신적·물질적 의지처로 작용하는 남한의 현 가족과,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친·인척, 친구, 이웃, 동료, 선·후배, 기타 모임에서 만난 지인들로 구축된 사회관계망, 동향조직, 다른 이산가족 등의 지지체계는 이들의 적응을 도왔다. 또한 이들이 남한에서 살면서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일구어낸 재산, 세상에 대한 낙천성, 성실성, 현실적응력 등의 성격, 건강, 기억력이나 사리분별력 등의 지력 등 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자원들도 이들의 남한 사회에서의 적응에 영향을 미쳤다. 한편, 이산 대상과의 교류 경험 중 이산대상과의 연락은 재회나 재결합을 꿈꾸어 온 이들 이산 1세대에게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동안의 세월을 보상받는 느낌을 갖게 하였다. 하지만 상봉 체험은 이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다. 염원이었던 재회의 실현으로 평생의 한을 조금이라도 풀어보는 체험을 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 체험으로 인해 이질성을 확인하고 한 가족으로서의 의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됨으로써 재결합에 대한 의지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산 1세대들은 이산의 초기에는 혼란이나 통제감이 결여된 휘둘림의 상태로 반응하다가 이후 힘든 시절에는 포기하거나 매달리거나 터뜨리는 전략 등을 통하여 자신의 이산 상황에 대처해 나아갔다. 그러나 이산이 장기화되고, 자신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다보는 성찰하거나, 또 자기통제나 자기수용 등의 마음 추스르기와 같은 대처전략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산 1세대들은 재결합에 대한 소망으로 재회 노력을 추진하기도 하고, 분리의 현실을 인식하고 그 분리를 수용하게도 되었다. 한편으로는 반평생 넘게 살아와 이제는 삶의 근거를 제공하게 된 남한이 나의 모국이라는 의식과 북한에 대한 거부감 등이 작용하여 남한에 대해 동화된 측면도 드러나게 되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재회의지가 약화되는 체념의 상태로 나타나고, 오랜 세월

분리되어 살아오면서 낯설어진 가족과 현 가족에 대한 충성심 갈등, 인생에 대한 허망감, 통일 이후 겪게 될 혼란에 대한 두려움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느낌의 미해결 상태가 귀결되기도 하였다.

3) 관계진술

관계진술은 두 개나 그 이상의 개념을 연결하여 어떤 현상에 대해 무엇, 왜, 어디서, 어떻게를 설명하는 "가설" 형태의 문장이다. 이러한 가설들은 자료에서 나온 것이지만 추상화이기 때문에 이들을 검증하고 각 사건 사건마다 자료의 계속적인 비교를 통해서 정교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Strauss & Corbin, 1990, 1998). 이렇게 생성된 가설들은 가설검증을 위한 연구를 통해 확증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심범주로 발견된 "이산을 수용하고 재결합을 향한 현실을 재정비함"을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으로 정의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적 관계진술을 도출하였다.

- (1) 이산의 조건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① 이산 당시의 상황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이산의 대상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2) 이산 후 생활변화는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① 생존경쟁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연고관계는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③ 정착노력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3) 가족의식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① 가족주의 가치는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② 가족정체성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4) 이념지향성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① 이념적 부담감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정치적 보수성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5) 지지체계는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① 현재 가족의 안정성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사회관계망의 지원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③ 타 이산가족과의 유대는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6) 가용자원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① 재산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성격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③ 건강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④ 지력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7) 이산대상과의 교류 경험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① 이산대상과의 연락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 ② 상봉 체험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영향을 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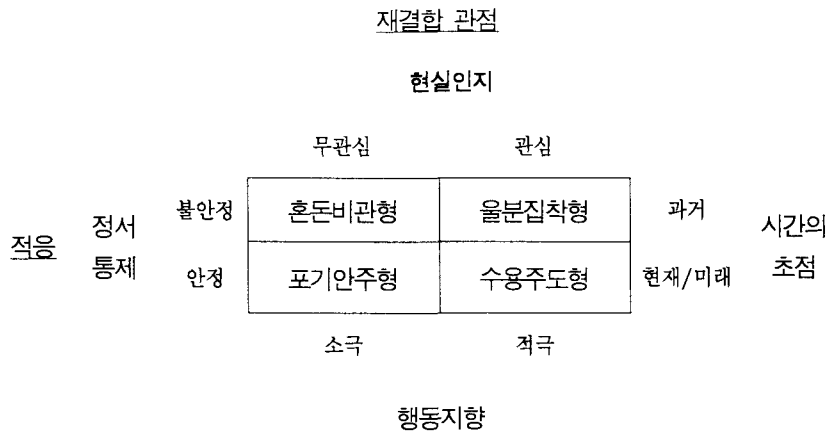
(8)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 재결합에 대한 관점은 다른 유형들로 나타난다.

5.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유형 및 사례

본 연구에서는 남북이산가족이 이산 이후의 적응과 재결합에 대한 관점을 조합하여 유형화를 시도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유형화 작업은 본 연구에서 근거이론접근의 범주분석과 과정분석에 의해 경험적으로 드러나는 현상들을 분석한 결과, 남북이산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양상의 차이는 적응뿐만 아니라 이들이 재결합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지니고 있는가가 관련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였다. 한편, 그 구체적인 하위차원의 추출이나 명명화, 유형의 배치 등은 근거이론에서 사용하는 주된 자료분석 방법인 지속적인 비교방법(constant comparative method)와 이론적 포화(theoretical saturation)에 의거하는 방식(Strauss & Corbin, 1990, 1998; Creswell, 1998:56-57, 150)을 취하였다.

이러한 작업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 차원과 재결합 관점 차원에 관계되는 하위차원을 각각 2개씩 추출하였다. 먼저, 적응과 관계되는 하위차원은 '정서통제'와 '시간의 초점'이다. 정서통제는 감

7) 이 유형화 작업은 경험적·현실적으로 본 연구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차별화된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는 4개의 유형을 중심으로 제시한 것으로, 제시된 유형 이외의 다른 유형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음.



<그림 3>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유형

정에 대한 관리와 정돈 수준을 가리키는 것으로 '안정'과 '불안정'으로 설정하였다. 시간의 초점은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의 시간적 지각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하는 것으로 '현재/미래'와 '과거'로 설정하였다. 한편, 재결합 관점과 관계되는 하위차원은 '현실인지'와 '행동지향'이다. 우선, 현실인지는 재결합을 위한 현실인식에 대한 심리적 관여 수준으로서 '관심'과 '무관심'으로 설정하였다. 행동지향은 외부적으로 표출되는 재결합을 향한 행위의 의지적 수준으로서 '적극'과 '소극'으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4개의 기준을 조합하여 차별화되는 4개의 유형을 도출하고, 그 유형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혼돈비관형', '울분집착형', '포기안주형', '수용주도형'으로 명명하였다(<그림 3> 참조).

다음에서는 각 유형에 대한 특징을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제시한다.

1) 혼돈비관형 사례 : 연구참여자 2

평북 운산 출신인 연구참여자 2는 1950년 12월 전쟁 발발 후 1.4후퇴가 시작되기 전 십대 후반의 나이로 단신 월남하였다. 청년 시절 고향에서 아는 형의 권유에 따라 반공청년회에 가입하여 활동한 경험이 있는 그는 한국전쟁이 터진 후 반공경력 때문에 중공군의 학살을 두려워해 월남을 권유한 어머니의 말을 듣고 혼자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그는 부모님과 남동생, 여동생을 북한에 두고 혼자만 남한에 내려올 때 일단 몸을 피했다가 다시 돌아갈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쟁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 그는 50년이 넘도록 그 이후 부모님을 볼 수 없었고 다른 이산가족들과는 달리 남겨진 가족들과 서신 교환도 되지 않아 가족들의 생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산 이후 혼자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교육 기

회가 변변치 못했던 그는 무연고로 끝어주는 사람도 없이 남한 사회에서 적응해 나가는 것이 고달팠다고 회상한다. 하층계급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살아온 그는 이산의 역사가 그를 좌절과 혼돈의 세월 속에서 살아오게 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며 우울감이나 비애감에 자주 젖는 그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어린 시절 고향에서 기억을 간직하고 살고 있지만, 이산가족 재회나 재결합에 대한 열망과 의지가 많이 꺾여 있는 상태이며, 이제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 가에도 별로 관심이 없다고 밝힌다.

2) 울분집착형 사례 : 연구참여자 26

함북 명천 출신인 연구참여자 26은 고향에 부모, 여동생을 남겨두고 혼자 월남하였다. 그는 가족 중에는 혼자 내려왔지만 남한에 와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수원에 살고 있었던 외삼촌의 도움을 얻을 수 있었다. 전쟁 중에는 부산에 내려가 피난민 생활을 경험하다가 전쟁 후 서울에 올라와 외삼촌이 하고 있는 장사를 거들게 되었고, 그 이후 27세에 같은 함북 출신 여자와 결혼하여 3남 2녀를 낳았다. 결혼 이후 독립하여 제조업 공장을 차렸으나 생각만큼 운영되지 않았다. 그 후 문을 닫고 여러 사업을 시도해 보았으나 번번이 실패를 경험하였다. 그는 자신의 기반인 북한을 떠나 살면서 자신이 누릴 여러 기회와 가능성을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며 역사적 비극에 희생당했다는 피해 의식과 불만을 가지고 있다. 종손인 그는 고향에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계급 출신이었는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땅을 공산당 때문에 빼앗겼다고 생각해 통일이 되면 그 땅을 꼭 찾아야 한다는 집념이 있다. 자신이 반공투사라고 말하는 그는 외삼촌을 도와 장사를 하거나 자기사업을 하던 중에도 반공단체 모임을 빼먹지 않고 나갔고

공산당을 규탄하는 집회 등도 많이 쫓아다녔다고 한다. 그런 모임에 쫓아 다니면서 함경도 출신의 '화끈하고 강인한' 성격 탓에 울분을 터뜨리는 일도 많았다. 그는 고향땅에 남겨진 부모님께서 이제는 돌아가셨다는 소식과 지주계급 출신 성분과 자신의 반공 경력을 이유로 가족이 몰락했다는 소식을 동향 출신의 후배에게 전혀 들었다.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울컥 감정이 북받치고 북한 정권에 대한 노여움이 치밀어 올라 마음 다스리기가 쉽지 않다. 그는 하나뿐인 혈육인 여동생과 현재까지 만나지는 못했지만 서신교환은 할 수 있었다. 그는 북한에 있는 고향을 꼭 방문하고 싶어 하고 통일되면 자신이나 자신의 아들이 여동생 가족과 재결합하여 그들을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3) 포기안주형 사례 : 연구참여자 27

황해도 황주 출신인 연구참여자 27은 고향에 부모, 누님, 여동생을 두고 혼자 남한으로 내려왔다. 집안에 외아들로 귀하게 자랐던 그는 단신으로 월남해야 했기에 이산 이후 겪은 고생이 눈물겨웠다고 밝힌다. 하지만 그는 북한에서 다니던 기독교 모임 단체의 연고로 남한에서 자리잡을 때 큰 도움을 받았다. 지금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그는 사업에 성공한 북한 출신으로서 경기도 이천에 자기 목장이 수십만 평에 이르는 재산을 구축하였다. 교회에서 만나게 된 서울 여자랑 결혼하면서 처가의 도움을 많이 받아 사업을 일구어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을 남한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북한 출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자본주의가 사람들의 자유를 더 보장해 주기 때문에 우월한 체제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몇 년 전에 그는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누나와 여동생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방문을 신청하여 극적인 상봉을 경험하였다. 하지만 그 상봉은 자신에게 현실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방문한 것은 본인 평생의 한을 풀만큼 감격스러웠으나 북한을 방문하는 동안 내내 자신이 이제 다시는 고향에서 살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너무나 달라진 산천과 이질화되어 말이 통하지 않는 누이들을 만나고서 그는 앞으로 통일 문제가 어떻게 전개되는가와 상관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상봉 직후 감정적인 동요가 있었으나 이제는 많이 평정을 되찾았다. 그는 통일이 되더라도 현재 익숙해져 살기 편한 남한에서 살고 싶다고 밝힌다. 누이들 가족과의 재결합의지도 많이 약화된 상태이다.

4) 수용주도형 사례 : 연구참여자 20

함남 홍원 출신인 연구참여자 20은 14후퇴 때 작은 형

과 함께 월남하여 고향에 계셨던 부모님, 큰형과 헤어지게 되었다. 부모님은 원래 아들 삼형제를 다 같이 남한에 내려 보내려 했으나 장가들어 살고 있었던 큰형은 장남으로서 부모님과 함께 있어야 한다고 본인이 함께 내려오려 하지 않았다. 비록 작은형과 함께 남한에 와 의지는 되었으나 다른 월남민들처럼 남한에서의 정착과정이 상당히 힘들었다. 북한에서 대학생이었던 그는 남한에서 어렵게 학업을 마쳤고 학교 교사로 수십 년 일하였다. 막내로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우애가 깊었던 큰형을 부모님과 함께 몹시 그리워했으나 몇 년 전 그 분들이 모두 다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도 북한 고향방문을 신청하였고 사년 전 북한에서 큰조카를 만났다. 어릴 때 얼굴이 조금 남아있기는 이제는 함께 늙어버린 조카를 보면서 세월의 무상함을 절감하였다. 죽기 전 부모님을 꼭 보고 싶다는 염원은 못 이루었으나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삶이 고통스럽기만 하거나 잘못된 삶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산의 현실을 수용하지만 그는 자신이 남한과 북한에 모두 가족이 있다고 생각하며, 가족의 재결합을 원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통일 직후에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이지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통일 되어 북한의 조카들을 만나게 되면 한 가족으로서 지내야 한다고 생각해 자신이 통일되기 전 죽더라도 자신의 자녀세대가 꼭 그렇게 하기를 당부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분단으로 인해 반세기가 넘는 동안 남한과 북한에 분리되어 이산을 겪은 남북이산가족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고, 그들의 적응과정을 이해하며, 재결합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한에 거주하는 이산 1세대 3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trauss와 Corbin(1990, 1998)이 개발한 질적 연구방법 중의 하나인 근거이론 접근방법에 따라 이루어졌다. 근거이론 접근방법에 따른 범주분석 결과, 175개의 개념, 39개의 하위범주, 그리고 2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결론과 논의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이산가족이 경험하는 중심적인 현상은 '회한(懷恨)'이다.

이산을 둘러싸고 남북이산가족들이 경험하게 되는 중심적인 현상은 다양하고 복합적인 감정이 결합되어 나타나는데 '한(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가장 빈도 높게 사용하는 표현으로서, 이산이나 월남 경험을 다룬 구술에 의한 다른 자료들(김귀옥, 1999, 2004; 조성미, 2002), 또는 경험수기(대한적십자사, 2001;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1996) 등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산 1세대의 정서를 가장 일차적으로 지배하는 것으로 보이는 '한'이라는 용어는 사전적인 정의가 제공되지 않는 한국 고유의 정서이기 때문에 개념화에서 과학적 엄밀성의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을 내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연구참여자들이 이산 후 경험되는 감정으로 지적인 심리적 고통, 죄책감, 좌절감, 분노감, 피해의식, 양가감정 등을 총체적으로 포괄하는 하나의 적절한 개념을 발굴하는 데 있어서 '한(恨)' 이외의 대안적인 명명은 그리 용이하지가 않다. 또한 이산가족의 경험을 가능하면 생생하게 담아내려는 현장성에 비중을 둔다면, 이와 같이 실제에 근거해서 현상을 진술하는 작업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남북이산가족은 이산을 경험한 후 그들은 압도단계, 갈등단계, 각성단계, 긍정단계의 적응과정을 거치며,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정에서 지지체계, 가용자원, 이산대상과의 교류 경험은 적응에 기여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정은 압도단계, 갈등단계, 각성단계, 긍정단계로 제시된다. 이러한 단계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기는 하지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혹은 주어진 순서대로 기계적으로 이전되어 가는 방식은 아니다. 연구참여자에 따라서는 아직도 갈등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또는 갈등단계 없이 각성단계에 진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누구나가 긍정단계에 도달하는 것도 아니며, 적응과정이 이러한 단계 경과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전개됨을 경험하는 연구참여자들도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정도 실제 경험적인 자료의 축적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연구주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정은 분리현상을 경험하는 주체들이 어떠한 적응과정을 거쳐 나가는가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이혼가족 자녀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던 박한샘(2004)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이혼으로 분리와 억눌리는 상태를 경험한 이혼가정의 자녀들이 억압단계, 갈등단계, 자각단계, 수용단계 등을 거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또한 여성의 이혼과정 경험을 탐색하고 설명하고자 한 최정숙(2006)의 연구에서는 이혼여성들이 분리의 혼돈, 일으킴, 재정립, 나아감의 단계를 거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현재가족의 안정성, 사회관계망의

지원, 타 이산가족과의 유대 등 지지체계가 적응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 이후 장기간 구축되어 온 현재의 가족은 이산 1세대의 안정과 정착의 기반이며, 일차적 소속감의 근거를 제공하는 정신적·물질적 의지처이다. 선행연구들(김명혜, 1988; 이성희·김태현, 1993)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남북이산가족은 이산을 경험하지 않은 가족들보다 가족결속력을 강조하는 가족주의가 강한 경향을 보여 왔다. 이는 이산으로 인한 가족해체나 상실을 보상하려는 심리에 근거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가족주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이산 1세대의 현재 가족은 이들에게 중심적인 보호인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친척, 인척, 친구, 선·후배관계, 종교모임, 자원봉사 모임, 이웃 등의 사회관계망과 동향조직, 이산가족모임 등을 통한 타 이산가족과의 유대는 이들의 적응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인들이다. 최정숙(2006)과 Samera와 Stolberg(1993) 등은 사회적 지지나 지지체계가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결과에서도 입증되고 있다.

재산, 성격, 건강, 지력 등의 가용자원은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기여하는 또 다른 요인들이다. 이산 이후 남한에서 이룩한 경제적 성공이나, 낙천성, 적극성, 성실성, 목표의식, 성숙수준 등의 성격적 측면, 그리고 신체적 건강수준, 기억력과 사리분별력 등의 지력은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에게서 적응에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 요인들이다. 이는 부모 이혼 후 자녀의 적응을 촉진시키는 보호요인으로 개인내적 자원을 제시한 박한샘(2004)의 연구와도 비슷한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다.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제시된 이산대상과의 교류 경험은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이 요인과 관련해서, 이산대상과의 연락은 적응과정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상봉 체험은 적응과정에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상봉 체험은 한편으로는 연구참여자들의 평생소원을 해소하는 '한풀이'의 효과를 지니고 있고 그것이 그들의 이후 적응과정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상봉 체험 후 가족정체성의 붕괴나 이질성의 확인 등으로 인한 재결합 의지 상실 등과 연결될 가능성도 있었다.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은 남북이산가족들을 대상으로 상봉 체험을 학술적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조명한 연구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는 후속연구에서 초점을 맞추어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셋째, 남북이산가족은 이산 후 적응의 핵심은 '이산을 수용하고 재결합을 위한 현실을 재정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북이산가족들이 지각하고 있는 이러한

적응의 내용을 분석의 마지막 단계에서 도출해낸 핵심범주를 통해 추출하였다. Germain(1987)은 적응을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이며, 환경을 변화시키거나 환경에 의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적응의 의미는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규정되며 적응의 주체를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아가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이산가족들의 적응은 사회적·물질적·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심리적·정서적 측면까지 포괄하여 규정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지각에 근거하고 이러한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하여 적응의 핵심을 포괄적·총체적으로 도출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남북이산가족의 적응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진 선행연구들이 거의 부재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본 연구 결과를 비교할 근거가 마땅치가 않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적응의 의미는 후속적인 연구 작업을 통해 계속 검증되어야 하리라고 보인다.

넷째,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 재결합에 대한 관점의 유형은 '혼돈비관형', '울분집착형', '포기안주형', '수용주도형'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과정에서 드러난 이산 1세대의 개인적 편차와 차별성을 부각시키고자 적응과 재결합의 차원을 동시에 조합시켜 유형론을 추출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분석의 결과, 흔히 동일한 집단적 성격으로 규정하고 접근하기 쉬운 남북이산가족의 경험이 개인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차이를 부각시킬 수 있었다. 이산 1세대인 연구참여자들은 적응 수준에서도 차이를 보이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이산된 가족과의 재결합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통념적으로 접근할 때, 남북이산가족들은 예외 없이 가족 상봉을 추구하고 재결합을 염원한다고 판단하기 쉬우나 실제 그들의 입장과 견해는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적 조건 등의 영향을 받아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다음에서는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거시적·정책적 차원에서는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학문적·과학적 정보와 자료에 근거한 정책을 입안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본 연구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남북이산가족들에게서 이산 대상과의 상봉 체험이 부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배경에는 행사성의 일회적 가족상봉의 한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보이는데, 정부 당국에서는 남북이산가족들의 실상과 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에 근거하여 그들의 요구를 세심하고 민감하게 수용할 수 있는 정책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학문적 차원에서의 후속연구에 대해서는 여

러 가지의 제언이 가능하다.

첫째, 전반적으로 남북이산가족을 바라보는 시각 측면에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월남이산가족은 무조건 반공전사이고 월북 유가족은 무조건 '빨갱이'로 보는 시각을 지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이산가족 연구를 시도할 필요성을 제안하는 선행연구(김귀옥, 2004)처럼 이산가족연구는 역사적 진실의 해명이나 과학적 접근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이용기, 1998).

둘째, 상식적 수준에서의 인식이 실제와 차이를 보이는 상봉 체험의 의미 등은 학문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조명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남북이산가족들이 재결합을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남북이산가족 상봉 체험은 그동안 대중매체의 소재나 시사적 논의의 대상으로는 자주 다루어져 왔으나 학문적 수준에서의 접근은 거의 불모지대와 다름없었다. 그들의 짧은 상봉 체험이 그들의 긴 이산 역사 속에서 무슨 의미를 갖고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이산가족 재결합의 논의와도 연계성을 갖는 작업이나, 정작 당사자인 남북 이산가족들은 이에 대해 어떤 관점과 태도를 취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술적 논의가 극히 빈약했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셋째, 남북이산가족의 범위에 들어가는 다양한 집단을 포괄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학문적 논의의 그늘에 있었던 특수이산가족이나 역외이산가족까지 그 연구대상을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이산가족의 실상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리라고 생각된다. 또한 이산 1세대와 여러 측면에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2세대의 연구들도 본격화하여 이들이 이전 세대에서 이산된 가족들에 대해 어떤 경험을 하고 가족의식을 얼마나 계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파악하는 작업도 가족정체성과 관련된 연구들에 귀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동시대집단(cohort)으로서의 이산 1세대가 고령화되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의 현상이 사회적·시대적 영향력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발달적 영향력에 기인한 것인지가 규명되지 않고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통제하기 위한 다른 방법론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의 한계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검토될 수 있다.

첫째, 연구참여자 선정상의 한계로 보다 다양한 집단을 연구대상으로 포섭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둘째, 상대적으로 남북이산가족에서의 재결합에 대한 내용이 보다 부각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는 본 연구에서

남북이산가족의 가족경험 전반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재결합의 주제보다는 적응이 상대적으로 보다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진 것에 기인한 바 크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기여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남북이산가족이라는 대상에서 가장 중심적인 측면이 '가족경험'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가족학에서는 이 영역이 부분적·제한적으로만 다루어진 경향이 있어왔다. 이산 상황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데도 가족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10여 년 간의 공백이 존재해 왔다. 학문적 측면의 연구관심사와 관련해서 본 연구는 바로 이러한 시점에서 이 분야의 선행연구들을 계승한다는 의미가 있다.

둘째, 학문적 차원에서의 구체적인 분석내용과 관련해서, 본 연구는 남북이산가족을 접근하면서도 선행연구들이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던 남북이산가족의 적응과정과 적응기제, 재결합을 보는 관점의 분석과 가족현상의 전체적 접근 등을 시도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셋째, 방법론 측면에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려는 노력으로 질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고 또한 근거이론 접근방법을 충실히 따름으로써 가설 검증 성격의 후속연구가 토대로 삼을 수 있는 근거이론화 작업을 시도했다는 것에서 그 기여점을 찾을 수 있다.

넷째, 실제적 측면에서는 남북이산가족에 대한 정책 입안에 도움을 주거나, 남북이산가족을 심리적·정신건강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상담적 개입의 기초 자료를 구성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11월 15일
- 심사일 : 2006년 12월 07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2월 16일

【참 고 문 헌】

강정구(1992). 해방 후 월남인의 월남 동기와 계급성에 관한 연구. 한국전쟁과 한국사회 변동. 서울: 풀빛.

_____(2002). 분단과 전쟁의 상흔.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서울: 당대.

김광익(1984). 이산가족의 생활상: 가난과 소외의 종교적 수용을 중심으로. 분단한국의 가족문제: 이산가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연찬 자료집. 미간행.

김귀옥(1999). 월남민의 생활경험과 정체성: 밀로부터의 월남민 연구.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_____(2004). 이산가족, '반공전사'도 '빨갱이'도 아닌...: 이산가족 문제를 보는 새로운 시각. 서울: 역사비평사.

김덕(1989). 통일논의와 이산가족 재회문제. 통일로, 14(9), 69-80.

김명기(1993). 남북이산가족의 재결합: 법적 의무를 중심으로. 인도법논총, 13(11), 167-176.

김명혜(1988). 분단을 직접 경험한 가족연구: 가족주의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문조(1985). 이산가족연구 1: 가족이산의 현실과 가족재결합 운동의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73(1), 155-173.

김성은(1995). 북한출신 월남인들의 경제적 정착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농가정학과 석사학위 논문.

김재용(1998). 이산가족 문제의 정치성과 인도주의. 역사비평, 44, 83-94.

김형재(1988). 속초시의 월남 난민 취락의 형성과정과 구조적 특색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남상준(1982). 전북 김제지방의 북한난민 개척촌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학과 석사학위 논문.

대한적십자사(1976). 이산가족백서. 서울: 대한적십자사.

_____(2001). 이산의 아픔을 겨레의 품에 안고. 서울: 대한적십자사.

도준호(2000). 단발성 이산상봉의 문제점. 한국논단, 132(10), 80-87.

류재철(2001). 통일 후 예상되는 가족법상의 문제점과 대책. 통일문제연구, 36, 201-223.

박명선(1983). 북한출신 월남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사회이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_____(1991). 월남한 가족의 경제생활사: 1950년대를 중심으로. 여성한국사회연구회(편). 여성·가족·사회(84-112). 서울: 열음사.

박한샘(2004). 이혼가족 자녀의 적응과정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 논문.

배성인(2001). 이산가족 문제의 현황과 새로운 모색. 극동문제, 12, 15-41.

신울(1997). 남·북한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정책적 한계와 그 개선방안. 이산가족 교류의 문제점과 실천방안. 서울: 한국미래정치연구회.

_____(2001).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산가족 정책의 중간평가와 그 정례화를 대비한 개선방안의 실증적 연구. 국제정치논총, 41(2), 45-71.

안병영(1984). 민족이산과 남북한관계. 서울대 사회과학과정책

- 연구, 6(1), 67-99.
- 엄명용(2000). 남북한 이산가족의 상봉과 사회사업의 과제. 한국 사회복지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미간행.
- 윤중주(1984). 이산가족의 형성배경과 그 분포. 분단한국의 가족문제: 이산가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연찬 자료집. 미간행.
- 이동원 · 조성남(1997). 미군정기의 사회이동. 서울: 이화여자 대학교 출판부.
- 이문웅(1984). 이산가족의 가족생활. 분단한국의 가족문제: 이산가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연찬 자료집. 미간행.
- 이북5도위원회(1981). 이북5도 30년사. 서울: 이북5도위원회.
- 이북5도청(1998). 월남인 추정인구비율 조사 자료. 서울: 이북5도청.
- 이성희 · 김태현(1993). 월남이산가족의 가족주의와 사회적 지원망. 대한가정학회지, 31(4), 95-113.
- 이용기(1998). 이산가족 연구 어디까지 왔다. 역사비평, 44, 252-270.
- 이은영(2001). 이산가족의 화합을 위한 법적 정비. 정책포럼, 29, 172-200.
- 이인희(1986). 8.15와 6.25를 전후한 통한 출신 피난민의 월남이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 이장희(1993). 이산가족의 재결합과 분단독일의 사례. 이산가족의 재결합. 대한적십자사 · 대한국제법학회 국제인도법세미나 자료집.
- _____(2001). '인도주의'만 강조 말고 실천적 접근해야: 이산가족문제 해결의 조건과 과제. 통일한국, 216(12), 16-18.
- 이효재(1985). 분단시대의 가족문제. 분단시대의 사회학. 서울: 한길사.
- 일천만이산가족추진위원회(1996). 단절의 벽을 넘어서(증보판). 서울: 일천만이산가족재회추진위원회.
- 임순희(1998). 남북한 이산가족 재결합 시 문제점과 대책.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 _____(2001a). 남북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과제. 통일로, 159, 54-63.
- _____(2001b). 남북이산가족문제의 현황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36, 101-119.
- 전병재(1984). 민족이산과 이산가족찾기운동의 사회적 함의. 서울대 사회과학과정책연구, 6(1), 101-122.
- 제성호(1998). 고령이산가족의 방문 및 상봉 활성화 방안. 통일연구논총, 7(1), 207-247.
- _____(2002). 철저히 탈정치화 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 새로운 방안을 찾아. 통일한국, 219(3), 28-31.
- 조성미(2002). 월북자 가족의 생활경험과 '월북'의 의미체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 조용환(1999). 질적 연구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조형 · 박명선(1985). 북한출신 월남인의 정착과정을 통해서 본 남북한 사회구조의 변화.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서울: 까치
- 최대석((1997). 남북이산가족 교류의 현황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안. 동국대 사회과학연구, 5(12), 219-249.
- 최의철(2000).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문제 해결 전망. 통일정책연구, 9(1), 63-100.
- 최정숙(2006). 여성의 이혼과정: 분리의 혼돈에서 삶을 재구축해 나아가기.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4(1), 111-141.
- 통일부(1999). 남북이산가족관련 기본통계. 보도참고자료.
- _____(2001a). 남북이산가족관련 회담 개최상황 및 주요 합의내용.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정책자료.
- _____(2001b). 남북이산가족방문단 교환 신문기사집(1-3차). 서울: 통일부 인도지원국.
- _____(2001c). 남북이산가족의 실상과 재회의 당위성.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정책자료.
- _____(2001d). 통일백서.
- _____(2005).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 신문기사집. 서울: 통일부.
- _____(2006). 남북이산가족 교류를 위한 정부와 민간의 노력.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정책자료.
- 통일연구원(1999). 남북이산가족문제해결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 한국방송공사(1984).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TV 특별생방송 138일의 기록. 서울: 한국방송공사.
- 홍두승(1984). 이산가족의 사회학: 빈곤과 사회적 기회의 박탈을 중심으로. 분단한국의 가족문제: 이산가족.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학술연찬 자료집. 미간행.
- _____(1985). 전쟁 · 이산 · 빈곤: 재회가족의 생활사를 통해 본 이산의 사회학적 일고찰.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서울: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Kwon, Tai-Whan(1977). *Demography of Korea*.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 Creswell, J. 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nzin, N. K. & Lincoln, Y. S.(2003a). *Strategies of qualitative inquir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Denzin, N. K. & Lincoln, Y. S.(2003b). *The landscape of qualitative research: Theories and issu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Germain, C. B.(1987). *Social work practice : People and environment*. N. Y.: Columbia University.
- Heshusius, L.(1990). Discussion on criteria. In E. G. Guba(Ed.), *The paradigm dialog*(pp. 198-201).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 Marshall, C.(1990). Goodness criteria : Are they objective or judgement calls? In E. G. Guba(Ed.), *The paradigm dialog*(pp. 188-197).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
- Samera, T. & Stolberg, A. L.(1993). Peer support,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Journal of Divorce and Remarriage*, 20, 45-64.
- Schreiber, R. S. & Stern, P. N.(2001). *Using grounded theory in nursing*.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 Stern, P. N.(1994). Eroding grounded theory. Morse, J. M.(ed.) In *Critical issues in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pp. 213-223). Thousand Oaks, CA : Sage Publications.
- Strauss, A. & Corbin, J.(1990).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
- _____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 Grounded theory procedures and techniques*(2nd ed.). Newbury Park : Sage Publications.